Sports p/36

최나연 LPGA 피날레 우승

metro

메트로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제2613호

주택 경매시장 젊은맘 약진

NEWS p/03

메트로 2012년 11월 20일 화요일 제2613호 www.metroseoul.co.kr

착한 '넥서스 4·10' 한국에서만 안파는 불편한 진실

최고스펙·반값가격 장점 많지만 제조사·이동사 수익 적어 출시 외면

글로벌 시장에서 호응을 얻고 있는 '넥서스4·10'의 국내 출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구글의 레퍼런스(기준) 제품으로 각각 선보인 두 제품은 최근 해외에서 출시 당일 30분 만에 매진되며 큰 인기를 얻고 있지만 정작 국내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넥서스4와 넥서스10은 각각 현존하는 스마트폰과 태블릿PC 가운데 성능과 사양에서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되지만 가격은 동급의 프리미엄 제품 절반 수준이다.

하지만 두 제조사는 국내 출시에 대체 부정적이다.

이유는 수익 때문이다. 두 제품은 각각 '옵티머스 G', '갤럭시노트 10.1'에 버금가는 스펙을 갖췄지만 구글의 레퍼런스 기기라는 이유로 가격이 저렴하다. 넥서스4·10을 국내에 들여올 경우 가뜩이나 가계 통신비 지출 비중이 높은 상태에서 '제 살 깎아 먹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두 회사는 레퍼런스 기기 자체가 양산 모델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시험용 제품이기 때문에 소수의 소비자를 타깃으로 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이동사 역시 한 배를 탔다. 두 제품은 3G를 지원하는 까닭에 4G LTE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려는 이동사 입장에서는 반가운 존재가 아니다.

그럼에도 국내 소비자들은 두 제품 출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적극적인 소비자의 경우 구매대행 업체나 이베이와 같은 해외 쇼핑 사이트에서 이들 기기를 사고 있다.

넥서스10을 구매하기 위해 매일 구글플레이를 체크하고 있는 이지은(28)씨는 "싸고 좋은 물건을 정작 국내 소비자에게만 공급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프리미엄 제품과 일반 제품의 브랜드 밸류나 성능이 사실상 같다는 것을 제조사 스스로 인증하는 셈"이라고 질타했다. /이성훈기자 lsh●

스마트폰 넥서스4(왼쪽)와 태블릿PC인 넥서스10

K팝 인프라 깔아 2000만명 대박!

싸이·슈주·소시·카라 등 세계무대 맹활약에도 국내 전용공연장 없어 외국인 관광객 유치 한계

정부-지자체·기업 뒤늦게 한류 투어 기반 마련 '2020년 2000만명 코리아 방문 프로젝트' 잰걸음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쓰는 가운데, 곳곳에 K-컬처 공연장이 설립돼 외국인 관광객 2000만 시대를 이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국비 250억원과 민간자본 1750억원을 들여 1만5000석 규모의 K-팝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 관광객 유치에 나선다.

현재 서울·인천 등 전국 10여 곳이 유치 경쟁에 뛰어든 상태다. 그중 경기도가 유치에 가장 적극적으로 부지 무상 임대를 정부에 제안했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는 고양시에 조성 중인 '한류월드' 내 핵심 부지 7만9359㎡에 K-팝 공연장을 건립, 주변의 방송·문화·쇼핑·숙박 시설 등과 연계해 관광객을 이끈다는 구상이다.

싸이를 비롯해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등 인기 가수들이 전 세계를 무대로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도 그동안 국내에는 1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공연장이 턱없이 부족했기에 이 계획안은 관광객 유치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이 매년 100만 명씩 증가해 21일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싸이 열풍이 정부가 목표로 하는 2020년 2000만 명 시대를 앞당기는 촉진제가 됐다는 분석이다.

음악평론가 임진모씨는 "공연장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K-팝 공연장 설립은 진작 서둘렀어야 하는 숙원 사업이었으나 그동안 추진이 쉽지 않았다. 싸이 열풍이 예산 집행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설립이 관광 및 문화 교류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문화계도 K컬처 아트홀 조성

문화계 역시 전문 공연장을 마련해 한류팬 유치에 나선다. 태권도·전통 가락·한국 무용 등 한국 문화 전문 공연장인 K-아트홀이 서울 올림픽공원 내에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한국 문화를 세계적인 문화 산업과 관광 자원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97억원을 들여 조성한 다목적 공연장으로 21일 개관한다.

지하 1층, 지상 2층의 전체 면적 2647㎡에 가변 돌출 무대(369석)를 비롯해 프로시니엄(389석), 아레나(493석) 등의 공연 무대를 갖췄다. 한국적 소재의 비언어극, 한국문화와 융합된 발레·뮤지컬 등 복합 장르 공연이 연중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올림픽공원을 포함한 잠실지구가 2.3㎢의 관광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신축 중인 롯데월드타워 등의 주변 명소와 함께 증가하는 관광 수요에 대응해 글로벌 문화 관광의 메카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국내 창작 뮤지컬의 일본 진출이 가속화되면서 CJ E&M은 해외의 전문 공연장에서 한류팬을 유치한다. 일본 메이저 엔터테인먼트 기업인 아뮤즈사와 업무 협력을 통해 내년 4월 도쿄 롯폰기에서 한국 배우들이 출연하는 '카페인', '김종욱 찾기', '싱글즈' 등 창작 뮤지컬을 1년 내내 상설로 선보일 계획이다.

CJ E&M 관계자는 "해외 팬들이 처음엔 한류 스타들을 보기 위해 공연을 보러왔다가 개성 있고 열정적인 한국 창작극의 매력에 빠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초창기 넌버벌 퍼포먼스 위주의 관람 문화가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한국 문화 전용 공연장이 생겨나는 배경을 설명했다.

/박진영기자 tak0427@metroseoul.co.kr

MC해머도 싸이에 반했다 가수 싸이와 MC해머가 18일 미국 LA에서 열린 '제40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엔딩 무대를 꾸민 후 관객들의 환호가 이어지자 손가락으로 'V'자를 그리며 답례하고 있다. <관련기사 29면> /AP 뉴시스

"일이 많아서" "상사 눈치보여서" 직장인 휴가사용률 세계 꼴찌

"일이 많아서…"
"상사 눈치가 보여서…"
한국 직장인들의 유급 휴가 일수의 실제 사용기간이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여행사 익스피디아가 22개국 직장인 86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 직장인의 평균 유급휴가 일수는 10일로 22개국 중 가장 적었다고 19일 밝혔다.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도 평균 7일에 불과해 13일 중 5일을 쓴 일본 다음으로 낮았다.
반면 영국, 프랑스 등 10개 국가의 직장인들은 휴가를 100% 다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만은 한국과 같이 10일의 휴가를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 사용한 휴가 일수는 평균 12일로 더 많았다.
휴가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이유로 한국 직장인들의 상당수가 과도한 업무 때문(67%)이라고 답했다. 또 '상사가 휴가 사용에 협조적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 한국 직장인들이 59%에 달했다. 휴가로 못 쓴 연차를 수당으로 환급받았다는 직장인들은 39.2%에 그쳤다. /서지원기자 sw@

고속도로 휴게소 흡연실 설치

여주·횡성·망향 등 7곳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격리된 흡연공간이 마련된다.
휴게소에서 왕래가 잦은 매장 입구나 화장실 주변을 지나는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사라질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고속도로 휴게소 7곳에 흡연실을 설치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흡연실 설치 휴게소는 여주(강릉 방향), 화성(목포), 횡성(서창), 망향(부산), 여산(순천), 칠곡(부산), 진영(부산) 휴게소다.
또한 흡연실이 설치되지 않는 휴게소에는 다음 달 7일까지 별도의 흡연구역을 지정 운영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 8일부터는 휴게소 건물 내부뿐만 아니라 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 등 외부 부속시설 공간이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위반 시 최대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설치된 흡연실은 자연공기 순환방식을 적용한 친환경적 설계로 에너지 소모를 크게 줄이면서 쾌적함을 유지하는 신개념 시설"이라며 "설치 효과가 확인될 경우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grass100@

대진표도 안나왔지만… 대선 투표지분류기 점검 제18대 대통령선거를 30일 앞두고 19일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 선거종합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개표 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 시험 운용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세배 짜게 먹는 3040男

가정 나트륨 섭취 줄었지만 김치·라면·찌개 등 직장 외식메뉴 탓 '중독수준'

우리나라 국민이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으로 짜게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섭취한 소금량은 약 12g(나트륨 4791㎎)으로 2010년(4831㎎)보다는 조금 줄었다.
소금 섭취량 증가세는 멈췄어도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의 2배 이상 짜게 먹는 수치다.
나트륨 섭취량은 성별·거주지역·소득수준 등과 상관없이 모든 인구집단에서 높았다.
연령대로는 30~40대가 제일 짜게 먹는 것으로 조사됐다.
30~49세 남자의 경우 WHO 권고기준 대비 3.4배인 6808㎎을 섭취하고 같은 연령대 여자는 2.3배인 4687㎎을 섭취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 측은 "30~40대 남성들의 나트륨 섭취 절반 이상이 외식에서 나올 정도로 외식이 잦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나트륨 섭취의 주요 음식은 김치류, 찌개류, 면류 등이었다. 김치류는 전 연령에서, 20대까지는 라면, 50대 이후에는 찌개류로 섭취하는 비율이 높았다.
생활 습관이 변하면서 가정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는 2008년 66%에서 지난해 52.7%로 지속적으로 줄어든 반면 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는 29%에서 36.1%로 꾸준히 증가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나트륨 섭취량이 여전히 높지만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감소한 것은 고무적"이라며 "싱겁게 조리하는 문화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국민건강영양조사 정보는 다음 달부터 홈페이지(knhanes.cdc.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용희기자 yunhus@metroseoul.co.kr

사랑이 주렁주렁 크리스마스를 한 달여 앞둔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 푸르메재단에서 장애아동들이 크리스마스 트리에 장식물을 매달고 있다. /뉴시스

의협 '주 40시간 근무·토요 휴무' 준법투쟁

의사들이 진료시간을 법정 노동시간에 맞춰 줄이는 준법 투쟁을 벌이기로 하는 등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다.
19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소속 개원의·전공의 등이 지난 17일부터 주 4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토요일 진료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노환규 의협 회장은 지속적으로 투쟁 참여 인원을 늘리고 추후 평일 진료 거부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포괄수가제·총액계약제 등 의사에게 불리한 정책을 계속 추진했다"며 "진료수가를 결정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구조도 불합리해 의료인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유리기자

올 쌀 생산량 400만톤 턱걸이 - 32년만에 최저치

우리나라 쌀 생산량이 30여 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현백률(현미를 쌀로 환산하는 비율) 9분도(92.5%)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21만8000톤(5.2%) 감소한 400만6000톤이었다.
이는 400만 톤을 턱걸이한 수준으로 냉해로 생산량이 급감한 1980년 355만 톤 이후 가장 적은 생산량이다. 또 지난달 통계청이 예상한 407만4000톤에 비해 7만 톤 정도 감소한 수치다. 통계청은 "올해 재배면적이 지난해보다 0.5% 감소하고 세 번의 태풍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황영철기자

조희팔 은닉자금 780억 발견…뇌물 검사는 구속영장

아무말없는 비리검사 수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광준 검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중앙지법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알선수재)로 서울고검 김광준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중앙지법은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또 같은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검사에게 건넨 돈 일부가 포함된 조씨의 은닉자금 780억원을 찾아 추적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찰은 "대구경찰청을 중심으로 조씨 일당이 숨겨 둔 자금을 찾는 수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는 2004년부터 5년간 의료기기 대여업을 가장한 피라미드업체를 차려놓고 4만~5만명의 투자자들에게 고수익을 준다고 꾀어 4조원 가량을 가로채 중국으로 도주했다.
경찰은 조씨가 경찰 간부 등에게 사건 무마를 위해 돈을 건네고 압력을 부탁했다는 정황을 포착한 뒤 수사를 벌여왔다. /세종호기자 eleven@

동부화재 신입연봉 4700만원

손보업계 1위 삼성화재 제치고 '신의 직장' 등극

동부화재가 보험업계에서 신입사원에게 가장 많은 연봉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제쳤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보업계 빅4의 대졸 신입 연봉은 동부화재가 세전 기준 465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해상(4580만원), 삼성화재·LIG손해보험(4300만원)의 순이었다.

동부화재 신입 연봉이 삼성화재보다 300만원 이상 많다. 전체 금융권 평균 신입 연봉은 3000만원 중반이다.

동부화재의 신입 연봉에는 성과급 등이 빠져 있다. 지난 4월 말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입 연봉이 6000만원을 훌쩍 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연봉의 평균 40%를 초과이익분배금(PS)으로 받은 삼성화재와 연봉의 30%를 성과급으로 받은 현대해상도 6000만원 선에 근접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성훈기자

난방용품 30% 할인행사 19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3층 가전매장에서 카본 탄소섬유 발열체로 무연 무취 무소음의 쾌적한 난방이 가능한 히터를 13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난방용품 최대 30%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카드 불법모집 신고 '카파라치' 도입

포상금 최대 200만원 지급

다음달부터 '카파라치(신용카드+파파라치)' 제도가 시행된다. 신용카드 불법 모집을 신고하면 건당 최고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여신전문협회는 사회적 감시망을 활용해 카드사의 준법 영업 감시 비용을 줄이고 자율적 감시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모집 신고 포상제' 도입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길거리 모집과 과다 경품 제공, 중합카드 모집 등 위법행위다. 길거리 모집의 경우 공항·역·여객자동차터미널·놀이동산·상가·전시관·운동장·학교 등 공공시설 또는 장소 내에서 다수인이 통행하는 통로를 포함한다.

과다 경품 제공은 신용카드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며, 타사 카드 모집은 A사 카드 소속 모집인이 B카드를 동시에 모집하는 등 자신이 소속된 카드사 이외의 카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다.

/박성훈기자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712> 글·그림 박상철

러시아 문호 톨스토이 사망

1910년 11월 20일 러시아를 대표하는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가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향년 82세. 톨스토이는 백작가의 4남으로 태어나 어려서 부모를 잃고 친척집에서 자란 톨스토이는 대학교육에 실망해 중퇴하고 지주로서 농민생활을 개선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군 복무 중 처녀작 '유년 시대'로 격찬을 받은 그는 결혼 후 문학에 전념해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 불후의 작품을 써냈다. 그러나 죽음의 공포와 삶의 허무 가정 불화로 방랑 여행을 하다 아스타포보역의 관사에서 숨을 거두었다.

'아파트 싸게 사자' 내집 마련 실수요자들 경매시장 북적북적

애 업은 엄마들도 베팅

"아기를 등에 업고 온 젊은 엄마, 손자와 손잡고 호가를 부르는 할아버지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주택 경매 업체 관계자는 현재 경매 시장의 분위기를 이같이 전했다. 주택 경매가 부동산 시장에서 나홀로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집값 거품이 여전하다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달 경매물건 입찰자수 연중 최다**

부동산경매정보업체 부동산태인은 10월 서울 아파트 경매 입찰자가 1622명으로 연중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 19일 밝혔다. 1월 938명, 2월 944명 등 연초 900명대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

주택 실수요자들이 경매로 눈을 돌린 것은 경기침체가 심화돼 경매물건이 급증함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지역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 아파트 경매물건은 지난 1월 570건에서 10월 950건으로 66.7% 증가했다.

◆ **투자목적 전문가들 제치고 잇따라 낙찰**

주거 선호도가 높은 '버블세븐(서울 강남·서초·송파구, 양천구(목동), 경기 분당·평촌·용인 등)' 지역에서도 매달 500~600개씩 아파트 물건이 나오는 등 공급이 풍족해 기존 매매시장이 부럽지 않다.

투자 목적으로 경매를 하는 부동산 전문가조차 실수요자에게 밀리는 형국이다. 중간 마진을 남겨야 하는 종사자와 달리 실수요자는 시가를 기준으로 집을 사들이는 까닭이다.

태인 관계자는 "아직 집값이 거품이 꺼졌다는 인식이 크기 때문에 저렴한 주택을 찾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서 경매가 대중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선옥기자 sun@metroseoul.co.kr

칼바람 불며 다시 기온 뚝 서울 오늘 아침 영하 1도

기온이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20일 서울 출근길 기온이 영하로 내려갈 전망이다.

19일 기상청은 "어제 아침까지 내리던 비와 눈이 그치면서 찬바람이 다시 강해지고 있다"며 "20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도를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상청은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과 일부 남부내륙에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생길 것으로 관측했다.

이번 추위는 수요일인 21일 낮부터 풀리지만 22일과 23일 사이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린 뒤 올 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보일 전망이다.

특히 서울의 기온은 23일 영하 2도, 24일은 영하 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22일 후반부터 24일 사이에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찬 공기가 남하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윤희기자 unique@

설국 춘천 19일 강원 춘천시내에는 첫째 눈다운 첫눈이 내려 아름다운 풍경을 연출하고 있다. 첫눈은 지난해보다 3할 빠른 것으로 춘천 4.2㎝의 강설량을 보였다. /뉴시스

"담판이라도 하겠지만 양보는 없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19일 토론회에 참석해 각각 점석의 행사 도중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문·안 내일밤 TV토론 합의…단일화 앞두고 기싸움 팽팽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21일 야권 단일후보 선출을 위한 TV토론회를 열고 처음으로 맞대결을 펼친다.

문 후보 측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안 후보 측 박승창 대외협력실장을 각각 팀장으로 한 협상팀은 19일 낮 12시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통해 단일화 첫 단계를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측 관계자가 전했다.

TV토론 장소는 한 때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확정된 것은 아니나, 토론 시간도 미정이다.

양측은 단일화 시한으로 못 박은 후보등록(25~26일) 시한이 임박한 만큼 20일 최종 단일화 룰을 타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단일화 방식은 촉박한 시간을 고려해 'TV 토론 후 여론조사' 방식이 유력한 방안으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21일 TV토론을 한 후 22일~23일 여론조사를 거쳐 24~25일 단일 후보를 결정하는 안이 유력해 보인다.

그러나 지지층을 최대한 끌어 모으면서 대선에 이기는 단일화를 이뤄내야 한다는 점에 양측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문 후보가 제시한 '여론조사 플러스 알파' 방안이 제시될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플러스 알파' 방식으로는 TV토론 후 배심원 평가나 공론조사, 후보 간 담판 방안 등이 꼽힌다. 특히 두 후보는 이날 담판에 의한 단일 후보 선출 방식을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다.

문 후보는 이날 "담판을 통해서라도 단일화를 꼭 이루겠다"면서도 "나는 개인 후보가 아닌 민주당 후보고 100만 국민선거인단이 선출한 후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양보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안 후보도 "양보를 위한 담판은 하지 않겠다"고 맞섰다. 그는 "기본적으로 담판이라면 서로 실무진에서 안 풀리는 부분에 대해 (두 후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양보를 위한 담판은 아니다"며 야권 단일 후보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측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문·안 후보의 단일화 토론에 맞서 박 후보에게 동등한 토론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23일 밤 토론 시간 배정을 방송사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유리기자 grass100@metroseoul.co.kr

대놓고 安 지지하겠다? 민주 집안단속 골머리

문재인·안철수 대통령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민주통합당이 늘어나는 민주계 안철수 후보 지지자에 대한 단속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19일 민주당 출신 전·현직 광주·전남 지방의원 38명이 무소속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남의 나주·화순 기초의원 및 전북지역 광역·기초 의원 등 230명도 안 후보를 지지했다.

지난 16일에는 민주당 원로를 포함한 전직 의원 67명이 문-안 후보 중 지지 대상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부의장 출신의 김덕규, 전북 출신 중진 조배숙 전 의원을 비롯, 어부명 이철 박상천·정대철 등 구 민주계와 비노 인사들이 중심이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해당 행위라며 강하게 비난하면서 각계의 지지 선언을 유도하여 내부 결속력 강화에 힘을 쏟았다.

박규섭 민주당 전북도당 사무처장은 "단일화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든 상황에서 분란을 다시 일으킬 필요는 없어진 것 같다"며 안 후보 지지자 처분에 대한 난감한 상황을 설명했다. /김유리기자

11월 20일은 피자헛에서 피자 메뉴를 M포인트로 50% 결제가능

Hyundai Card

카드신청 전용번호 1577-0100 | www.hyundaicard.com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Ⅲ2
TEL (02)721-9800 FAX (02)730-5551
발행·편집인 남궁호
사장 편집인 김종혁
광고국장 직대 김준일
서울광고문의 (02)721-9851 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862
2002년 5월 3일 창간 2002.5.31 등록번호 문화가 00107

"安 '친노의 덫'에 걸려 결국 文 될 것"

새누리 단일화 맹비난

새누리당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단일화 논의가 재개되면서 이들에 대한 공세의 수위를 한껏 높였다.

19일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선대위 회의에서 "결국 문 후보로 단일화되는 수순만 남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앞서 예상했던 것처럼 안 후보가 정치조작 전문가인 친노의 덫에 걸렸으며 문 후보는 홍 큰 결단을 내릴 것 이라는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양자 간 TV토론 등을 열어 국민의 판단을 흐리놓는 악행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 후보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론을 폈다. 김성주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안 후보에 대해 "전혀 정치 경험과 국정 경험, 공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뛰어들었다는 자세가 놀랍다"며 "기다렸다 5년 뒤 당당하게 다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가에서는 새누리당이 양 후보에 대한 동시 배반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문 후보로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전략 미련에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문 후보에 대해서는 '실패한 친노의 좌장'이라고 규정하고 책임론을 집중 공략할 것이란 관측이다. 어 정우 서해북방한계선(NLL) 등 대북 정책에 대한 공방이 다시 격화될 전망이다. 만약 안 후보가 링 위에 오를 경우 무경험과 불안감을 내세워 박 후보의 준비된 대통령 이미지를 최대한 부각시킬 것으로 보인다.

/배동호기자 elia@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가 19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토론회에 참석, 농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출산묘사 그림 새누리 법적대응 방침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출산 장면을 기상해서 묘사한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에 대해 새누리당이 강력 대응 의지를 강조했다.

권영세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해당 그림을 보여주며 "민중미술가라고 하는 홍 화백이 그린 이 그림에 여성은 물론 많은 국민들에게 수치심을 일으켰다"며 "박 후보를 폄훼한 그림을 내건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권 실장은 "예술이 정치 수단화가 돼 사용되면 예술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과거 나치시대 선동정치를 펼쳐 유대인을 학살한 괴벨스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표현의 자유의 헌법소원을 언급한 홍 화백을 향해 "표현의 자유에는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선대위는 박 후보와 여성 국민을 대표해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동호기자

김정은 '세계 최고 섹시남'

미 풍자 인터넷 매체 선정
"부인 리설주 행운의 여인"

미국의 한 인터넷 매체가 북한의 김정은(사진)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최고 섹시남'으로 꼽았다.

19일(현지시간) CNN방송 등 외신에 따르면 시사 풍자물로 유명한 인터넷 매체 '디 어니언'은 김정은을 '2012년 살아있는 최고의 섹시 남성'으로 선정했다.

디 어니언은 "잘생기고, 둥그런 얼굴에 사내다운 매력과 강하고 탄탄한 체형 등을 갖춘 평양 태생의 이 멋진 남성은 모든 여성의 꿈"이라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정은의 귀여운 모습과 흠잡을 데 없는 패션감각, 세련된 짧은 머리, 유명한 미소는 우리 편집진을 기절하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디 어니언의 메리시 블레이크 즈위블 패션·오락 담당 편집장은 "그는 귀여움과 남성적 매력을 동시에 갖고 있다"면서 "김정은의 부인 리설주는 행운의 여인"이라고 덧붙였다.

디 어니언은 지난해에는 시리아의 독재자 바샤르 알 아사드 대통령을, 2010년에는 금융시기범 버니 매도프를 '최고 섹시남'으로 선정한 바 있다. /조선미 기자

자민>민주>유신 일본 총선 '3파전'

다음 달 16일 열리는 일본 총선이 자민당, 민주당, 일본유신회의 3파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19일 아사히신문의 총선 여론조사에 나타난 정당별 지지율은 제1야당인 자민당이 가장 앞선 가운데 민주당과 일본유신회가 뒤를 잇고 있다.

아사히신문 여론조사(17~18일)에서는 다음 달 16일 치러질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지지할 정당으로 자민당을 꼽은 이가 22%로 가장 많았다. 그 뒤로 민주당(15%)과 일본유신회(6%) 순이다. 태양당 지지율은 1%로 지난 17일 합당한 일본유신회와 지지율을 합할 경우 7%로 공명당(4%)보다 앞서 제3당 가능성을 높였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여론조사(16~18일)에서는 자민당 25%, 민주당 16%로 나타난 가운데 일본유신회(11%)와 태양당(4%)을 합한 지지율은 15%였다.

이번 총선에서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쟁점화시키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는 참가에 찬성(43%)하는 사람이 반대(34%)하는 사람보다 많았다.

중의원 선거 후 바람직한 정권 구성으로는 '민주당과 자민당을 제외한 정당 중심의 정권'을 주문한 응답자가 35%로 가장 많았다. 이는 여론이 기존 정당에 등을 돌렸음을 보여준다. /조선미 기자

이스라엘 지상 공격 강행하나

가자지구 닷새째 공습… 하마스와 정전협상도 난항

수지 여사 찾은 오바마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시간) 미얀마 양곤에 위치한 아웅산 수치 여사의 자택을 찾았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수치 여사의 어깨를 감싸 안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미국 대통령의 미얀마 방문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이다. 백악관은 이번 방문으로 미얀마에 불기 시작한 개혁의 바람이 계속 이어지길 바라는 입장이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6시간가량 미얀마에 머물다 아세안정상회의가 열리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AP 뉴시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교전으로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전면전 우려까지 높아지면서 국제유가 또한 요동칠 조짐이다.

18일(현지시간) AP 통신, 영국 BBC 등 해외 언론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해·공군을 동원해 닷새째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를 공습하면서 최소 29명이 숨졌다. 이는 이번 교전이 발생한 이후 하루 최대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 사망자는 총 75명으로 늘었으며 이 중 절반가량은 민간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3살의 유아들도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상자도 최소 700명에 이른다.

국제 언론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 국제본부의 크리스토프 들루아르 대표는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하마스의 로켓 공격으로 3명이 숨지고 5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정전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하마스는 정전 협의를 위해 가자지구 봉쇄 해제와 이스라엘의 하마스 지도부 암살 및 군사 작전 중단을 국제사회가 보장하는 등의 조건을 요구한 반면 이스라엘은 가자 이스라엘 국경에 설치된 보안 장벽 접근을 금지할 것과 가자 이집트 국경 지하 터널을 통한 무기 반입 금지 등의 조건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스라엘은 국경 접경지대에 지상군 투입에 대비해 전투부대를 주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19일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하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집트가 주도하는 휴전 노력에 양측이 전폭적으로 협조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폭력 종식을 위한 움직임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지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태가 긴박하게 돌아가자 국제유가도 요동치고 있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2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중질유(WTI) 가격은 지난 17일 전일 대비 1.22달러(1.4%)나 폭등한 배럴당 88.67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성경수 외환선물 연구원은 "중동 지역 긴장감이 당분간 이어지면서 유가는 방향성 없는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국명 기자 kmlee@metroseoul.co.kr

성범죄자, 인터넷 ID 바꾸면 즉각 보고

미 캘리포니아주 법 개정
인권침해 논란 거세질 듯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률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가 지난 6일 대선 당시 주민투표를 통해 성범죄자들의 인터넷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을 통과시켜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다.

이 법안에 따르면 성범죄자들은 인터넷을 사용할 때 e-메일 주소와 사용자 이용 ID 등을 주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또 새로운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사용자 이름을 바꿀 때도 24시간 안에 보고해야 한다.

이들이 당국에 보고한 인터넷 관련 정보는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 내역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새 법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시민자유연합은 "새 법이 시민의 자유권과 인터넷에서의 익명 발언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주에는 수많은 인터넷 기업과 온라인상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옹호하는 단체들이 몰려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새 법에 대한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미국 내 성범죄자 명부를 가장 오래전부터 작성해온 곳이다. 1947년 이후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7만4000명의 명단을 갖고 있다. 등재된 성범죄자 수도 미국에서 가장 많다. /조선미 기자 seemi@

日 후쿠시마 10대 여성 첫 갑상선암 의심 판정

지난해 3월 원전사고가 발생했던 일본 후쿠시마에 사는 10대 여성이 갑상선암 의심 판정으로 정밀조사를 받고 있다고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후쿠시마 현민 건강관리조사 검토위원회는 "10대 중후반 여성이 갑상선암이 의심돼 즉시 세포와 혈액을 정밀 조사하는 2차 검사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성의 정확한 나이 등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다. 후쿠시마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갑상선 조사에서 암 의심 판정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선미 기자

metro global

전 세계 27개국 220개 도시에서 발행되는 메트로신문은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해외 메트로 주요 기사들을 소개합니다

metro France

a graisse dans le moteur

metro Hongkong

萬年鳥化石搖

10만년 된 타조알 화석 '출렁출렁'

중국 광둥성 부저우시의 공사 현장에서 거대한 알이 발견됐다. 문물관리소 직원은 공룡알로 추정했지만 고생물학 전문가 감정 결과 타조알 화석으로 밝혀졌다. 이 화석은 길이 20㎝, 둘레 50㎝로 흔들어 보면 놀랍게도 액체가 출렁이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화석 표면은 이미 돌로 변했지만 안에는 아직도 난액(卵液)이 남아 있는 것이다. 부저우시 문물관리소의 한 소장은 "5만~10만년 된 타조알 화석으로 현재 시에서 출토된 화석 가운데 유일한 타조알 화석"이라고 말했다.

metro Russia

Капучино и латте истребят в этом веке

70년 뒤엔 커피 아예 못마실 수도

커피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 최근 영국왕립식물원 학자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커피가 머지않아 사라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후 변화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지속될 경우 70년 뒤에는 세계 커피 생산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아라비카들이 멸종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세계 곡물 시장에서 커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러시아커피협회 관계자는 "올해 러시아의 평균 인상률도 5~7%로 빠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metro Canada

o vegetative brai

식물인간의 생각 읽어내는데 성공

머지않아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환자들과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지 모른다.

캐나다 웨스턴 온타리오대학 뇌·정신센터 연구팀은 수년간 뇌파를 이용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와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팀은 12년 전 끔찍한 교통사고로 뇌 손상을 입고 식물인간 판정을 받은 스콧 루틀리(39)와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연구팀이 루틀리와 대화를 나눈 방식은 뇌파를 감지하는 자기공명영상(MRI)장치를 통해서다. 환자에게 질문을 던지고 특정 이미지를 떠올리도록 요청한 뒤 MRI 뇌 스캐닝을 실시한 것. 이 과정에서 '예스'와 '노'를 관장하는 뇌 영역은 질문에 따라 밝게 활성화된다.

뇌-정신센터 연구팀은 루틀리에게 먼저 질문에 대한 답변이 예스면 테니스 치는 장면을, 노면 집으로 들어가는 생각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지금 아픈가"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환자가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떠올렸다. "아프지 않다"는 뜻을 명확하게 전달한 것이다.

연구팀의 데미언 크루즈 박사는 "대뇌에 손상을 입어 식물인간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모든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듯 환자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을 수 있으면 몸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 치료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0년에도 유럽 연구진이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 중 일부에게 의식이 있다는 연구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영국과 벨기에 연구팀은 7년간 식물인간 상태로 지낸 환자의 뇌 신경 신호를 읽어냄으로써 환자와 '대화'가 가능하다고 했다.

/ 한윌러 볼리스 기자·정리=조선미기자

돼지기름으로 차 굴린다

프랑스 업체, 도축장·슈퍼마켓 정육코너 동물기름 모아 바이오연료 생산 추진

먹을 수 없는 소나 돼지의 지방으로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을까.

슈퍼마켓 엥테르마르셰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프랑스 대형 유통그룹인 레 무스크테르가 이같이 기발한 아이템을 사업화해 화제가 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메트로 프랑스 파리는 북부 항구 도시인 르 아브르에 건설 중인 '에코모션'을 소개했다. 이 공장은 도축장이나 슈퍼마켓의 정육 코너에서 나온 고기 찌꺼기를 이용해 자동차용 바이오 연료를 만들 예정이다.

무스크테르의 신업 클러스터장인 마셀 오르테가는 "유채 해바라기 등으로 만드는 바이오 연료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주긴 하지만 식량을 재배할 농지도 덩달아 감소한다는 단점이 있다"며 "동물 지방을 이용한 바이오 연료는 이같은 부담을 줄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에 동물 재료를 맡고 있는 기업인 사리아의 회장인 장 루이 쥐델도 "프랑스에서는 매년 식용에 부적합한 동물 지방이 13만t이나 생산된다"며 "대부분 난방이나 에너지 생산용으로 태우고 있지만 바이오 연료로 재활용한다면 더 가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물 지방을 이용해 바이오 연료를 만드는 방법도 간단하다. 축

비식용 돼지 지방(왼쪽)과 불순물을 제거한 뒤 추출한 기름

회사에서 나오는 식용 부적합 고기를 사리아가 회수해 지방질을 추출해낸다. 이 지방질에 메탄올을 혼합하면 끝이다.

내년 중 가동에 들어갈 에코모션 공장은 매년 7만5000t의 바이오 디젤을 생산할 계획이다. 이 바이오연료는 기존의 디젤보다 온실가스 배출은 83% 줄고 유해 일자도 적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느-파엘 뮈랄 기자·정리=이국명기자

today metro global 지금 클릭! metroseoul.co.kr

29세 여교사·17세 제자의 불장난

쓰레기통서 잠자던 아이들 '참변'

신비롭지만 끔찍한 '시신 전시회'

12000

EPSON

Gmarket
엡손

시민 아이디어 서울을 바꾸다 –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 3

"적정기술로 보청기 값 내렸죠"

어어폰형 보청기·저가형 의족 등 소외된 99% 위한 아이디어 봇물

서울시와 민간 시민사회는 '여럿이 함께하는 경제 2012 서울 사회적경제 아이디어대회'를 개최해 시민 아이디어를 모은다. 대회를 통해 제더된 시민 아이디어는 '허자센터', 서울 사회적경제네트워크 등 민관이 머리를 맞대 해법을 찾고 직접 현실화한다.

현재 대화 공식 누리집 위키서울닷컴(www.wikiseoul.com)에는 서울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이 제안한 300여 개의 아이디어가 등록돼 시민 및 전문가들과 활발한 교류가 진행 중이다.

특히 99%의 시민을 위한 적정기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는 과학분야 아이디어들이 관심을 모은다.

"먹고, 듣고, 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하는 기본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이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난청이 있는 사람들이 비싼 가격 때문에 보청기를 쉽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어요."

적정기술기업 사례 발표자로 이번 대회에 참여한 김정현(작은 사진) 딜라이트 대표는 어어폰형 보청기를 개발해 가격을 70%나 낮추고 기존 시장의 장벽을 허물어 낸 이야기를 소개했다.

김 대표는 "제품 표준화를 통해 보청기 단가를 낮추기 위해 계속 연구했다"면서 "결국 기술 표준화에 성공해 타 제품 대비 50~80%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가격을 낮추니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돼 보청기 시장 전체가 점점 변해갔고 이제 전국 12개 매장에서 사람들이 딜라이트 보청기를 만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현재 위키서울닷컴에는 ▲비영리 기관을 위한 IT 지원센터 ▲저가형 의족 보급과 의족 사용자를 위한 클리닉 프로그램 아이디어 등 과학기술 관련 아이디어들이 높은 추천수를 기록하며 시민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시민 추천을 받은 아이디어는 서울시 민의제 40선에 꼽혀 ▲그라우드 펀딩 1000만원 ▲상업우수팀 해외연수 및 창업지원금(1000만원) ▲최장 3년간 맞춤형 인큐베이팅 제공을 받는다. 아이디어 등록은 서울 시민 누구나 위키서울닷컴에서 가능하다. /배동호기자

복지사각 30만명 겨울나기 돕는다

난방비·생계비 등 가구당 월 최대 45만원 지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이웃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매월 최대 45만원까지 지원된다.

서울시는 19일 희망온돌 사업비 388억원을 확보해 약 30만 명의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희망온돌 사업은 시가 확보한 민간기금 40억원, 자치구와 공동모금회의 모금액 290억원, 동절기 특별지원비 58억원 등 민관이 함께 모은 자금이다.

시는 우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어렵거나 기존 긴급지원 대상의 엄격한 요건 때문에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인 최저생계비 200% 이하의 어려운 가정에 '희망온돌 위기 긴급비'를 집행한다.

지난해 월 10만원이었던 난방비는 올해 15만원으로 늘어 지원되며, 지원기간도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로 확대된다. 아울러 생계·주거·의료비 및 기타 긴급비의 경우 가구당 최대 월 3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또 '희망온돌 위기 긴급비'만으로 충분한 지원 효과를 볼 수 없는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확보한 5억원의 광역기금을 활용,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이밖에 평소 지원의 손길이 부족한 사각지대를 찾아 생필품을 전달하는 '희망마차'를 매주 3회씩 4개월간 운영하고, 독거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이웃 1만 가구를 대상으로 보일러 점검과 동파방지용 보온재를 설치하기로 했다.

만일 갑작스런 한파에 보일러 고장이나 난방이 불가한 경우 임시 거주공간인 '희망온돌방'도 지정 운영한다. 또 새벽 인력시장에서 추위에 떠는 일용직 근로자를 위해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희망식당'을 7호선 남구로역에 설치키로 했다.

/배동호기자 elevin@metroseoul.co.kr

농정원, 농촌마을 찾아가 홍보재능 기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원장 하영효)이 농어촌 재능기부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다.

가치혁신본부 소속 직원 14명은 지난 14일 경기도 안성 미리내마을을 찾아 마을 홍보 관련 재능을 기부하고, 마을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미리내 권역 종합정비사업의 세부사업 개발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돕기로 했다.

미리내마을은 신유박해와 기해박해를 피해 천주교 신자들이 모여 생성된 교우촌으로, 김대건 신부의 시신을 안장한 미리내성지가 있는 곳이다.

농정원은 미리내성지 순례길, 저수지, 농로 등 미리내마을이 보유하고 있는 훌륭한 향토자원을 활용해 스토리 개발 및 팜핑스테이 프로그램 추진 안(案)을 이용한 식품 및 브랜드 개발, 마을 홍보 동영상 제작 등을 제안하고 마을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동호기자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2014년까지 완료

서울시가 3286개소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석면조사 대상은 대규모 점포 2000㎡ 이상 건축물 307개소와 어린이집 430㎡ 이상 건축물 504개소, 의료기관 2000㎡ 이상 건축물 235개소 등이다.

시는 올해 다중이용시설 대상 건축물 현황조사를 실시해 소유자를 파악하고 법률상 의무적으로 정한 조사시점을 1년씩 단축해 2014년까지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다중이용시설 건물 소유주는 건축물 석면조사의 조기 실태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동참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동윤희기자 unique@

Nikkei (일본)
9153.20 (+129.04)
Hang Seng (홍콩)
21262.06 (+103.05)
Shanghai (중국)
2016.98 (+2.25)
Dow Jones (미국)
12588.31 (+45.93)

EXCHANGE RATE

통화	환율
달러	1087.00
엔(100)	1338.18
유로	1389.19
위안	174.35

유해 앱 걱정없는 '키즈패드' 아이 좋아!

LG전자 유아전용 스마트패드 출시…21일 GS홈쇼핑 판매방송

사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유아 전용 스마트패드가 등장했다.

LG전자는 유해 콘텐츠의 위험이 없는 'LG 키즈패드'를 21일 국내 출시한다. 아이들이 놀이와 학습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키즈패드는 유아들이 부모의 스마트 기기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유해 콘텐츠 노출 ▲유료 앱 내려받기 등의 위험을 제거하고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이다.

LG전자는 경기콘텐츠진흥원과 공동으로 투자하고 엄선한 콘텐츠를 이 제품에 담아 아이 수준에 맞는 체계적인 학습을 가능케 했다. '이야기 나라', '세계 명작' 등 기초적인 콘텐츠 및 단계별 ▲한글 ▲영어 ▲수학 ▲과학 등 3~7세의 정서와 인지 발달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다.

아이는 기본으로 제공되는 콘텐츠 외에도 확장 카트리지를 통해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실행, 놀이 학습을 할 수 있다.

◆ 건전한 학습·놀이 콘텐츠 풍성

예를 들어 '키즈 도서관' 카트리지는 '교과서 세계명작', '한글 기초', '한글 그림사전', '영어 그림사전' 등을 제공한다. 현재 별도 구매 가능한 카트리지는 '리틀와이', '붕붕 잉글리시' 등이 있으며 다양한 콘텐츠가 추가 출시될 예정이다.

키즈패드는 학습 기능 외에도 카메라, MP3, 놀이나라, 색칠놀이 등 아이들의 상상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것은 물론 재미까지 선사하는 기능들을 탑재했다.

LG전자는 유아들이 제품을 입으로 빨고, 쉽게 던지는 행동 습성을 고려해 엄격한 기준의 무독성 및 낙하 테스트를 진행했다.

◆ 사용시간 조절도 가능

또 조도센서를 통한 자동 밝기 조절 기능으로 눈의 피로를 줄였으며 보호자가 일정 시간 사용 후 자동으로 전원이 꺼지도록 설정, 아이의 지나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게 했다.

LG전자는 21일 오전 10시20분에 GS 홈쇼핑 '르첸' 생방송을 통해 2000대 한정으로 특별 판매한다. 가격은 '키즈 도서관', '리틀와이', 'YBM 시사 붕붕 잉글리시' 등 확장 카트리지 및 보호 케이스를 포함해 29만9000원.

/박성훈기자 zen@metroseoul.co.kr

건강 빛내줄 '빨간보석' 11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 지하2층 과일매장에서 캘리포니아 석류협회가 본격적인 석류 출하 시즌을 기념해 '캘리포니아 석류'의 효능과 맛을 전달하는 행사를 갖고 있다. /뉴시스

이동사 골라쓰는 20만원대 갤럭시

단말기 자급제용 20만원대 갤럭시 모델인 '에이스 플러스'가 19일 출시됐다.

이 제품은 국내에 이미 시판된 모델을 자급제 단말기로 재출시 하지 않고, 국내에 출시되지 않은 모델을 자급제 단말기로 선보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갤럭시 에이스 플러스는 3.65형 HVGA 해상도 디스플레이, 곡선형의 디자인, 500만 화소 카메라 등을 탑재했다. 이 제품은 통신사 앱을 탑재하지 않았으며, 소비자가 구매 후 SKT, KT 등 통신사에서 개통해야 한다. 20만원대. /박성훈기자

부도 늘고 신설법인 감소

지난달 부도업체수는 늘어난 반면 신설법인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합한 부도업체 수는 116개로 한 달 전보다 14개 증가했다. 이는 지난 7월(117개) 이후 올해 들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신설법인 수는 5639개로 한 달 전보다 56개 줄었다. 신설법인수는 지난 7월 7127개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후 석 달 연속 하락세다.

SKT-NHN '빅데이터 동맹'

노하우·기술 교류 위한 프로젝트 그룹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

새 먹거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1위 기업들이 손을 잡았다.

통신업계 선두주자 SK텔레콤과 포털 강자 NHN은 19일 ▲빅데이터 사업 육성 ▲유무선 융합 신규 서비스 발굴 ▲기업의 사회적 책임(CRS) 활동 공동 추진 등을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회사는 모바일·인터넷 정보분석 기술과 노하우를 교류하면서 빅데이터 사업을 육성키로 했다.

빅데이터는 현상 속 수많은 정보들을 분석해 특징이나 유형을 찾아내는 기술로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유망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꼽힌다.

양사는 다음 달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빅데이터 프로젝트 그룹을 운영하며 빅데이터 인프라 시스템을 강화키로 했다. 빅데이터 시대에 중요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과 빅데이터 분석 체계 확립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두 회사는 SK텔레콤의 네트워크 인프라와 기술, NHN의 서비스·콘텐츠 개발·운영 역량을 결합해 다양한 신규 생활서비스도 발굴키로 했다. 네트워크 콘텐츠 서비스의 고른 경쟁력에 관련한 기업 컨설팅 솔루션 사업, 스마트홈 네트워크 사업 등에서의 협력에도 속도를 내고 해외 진출 기회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박성훈기자 zen@

통커진 외장하드…SNS 데이터도 쏙

개인도 빅데이터 시대를 맞고 있다. 클라우드가 대세라고는 하지만 자신만의 큼직한 용량의 하드에 콘텐츠를 담고 싶어하는 소비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장하드 제조사는 2TB의 용량과 함께 속도를 개선한 제품,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특화 상품을 속속 출시하고 있다.

토종 외장하드 업체 새로텍은 2.5인치의 콤팩트한 크기에 2TB 용량의 '큐티 SD-30'을 출시했다. 2TB는 디지털 사진 40만 장, MP3 파일 50만 곡, 240시간 분량의 동영상을 저장할 수 있는 넉넉한 용량이다.

게다가 USB 2.0보다 최대 10배 빠른 USB 3.0을 지원해 데이터 전송 속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씨게이트의 '백업 플러스'는 아이콘을 몇 번 누르면 PC에 담긴 데이터를 백업할 수 있으며 페이스북이나 플리커 등 SNS서비스에 담긴 콘텐츠까지 백업할 수 있다. 이들 제품은 10만~20만원대에 판매된다. /박성훈기자

한국인의 true friend

[illegible]

"펀드베테랑이 제안하는 손쉬운 해외채권 투자방법"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해외채권펀드 컬렉션

판매중인펀드

쉽다! 펀드별 해당 대표 채권인덱스 추종

다양하다! 5가지 해외채권펀드의 폭 넓은 선택가능

합리적이다! ETF에 주로 투자하여 낮은 보수

스마트하다! 시장상황 및 투자목적에 맞게 상품별 조합 가능

글로벌 분산투자 채권펀드	글로벌 이머징 채권펀드	글로벌 하이일드 채권펀드	글로벌 투자적격 채권펀드	글로벌 물가연동 채권펀드

(판매사) 한국투자증권

펀드베테랑-한국투자신탁운용

02)3276-4700 www.kim.co.kr

■한국투자 글로벌분산투자 증권자투자신탁 H/U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이머징 증권자투자신탁 UH/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하이일드 증권자투자신탁 UH/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투자적격 증권자투자신탁 UH/H [채권-재간접형] ■한국투자 글로벌물가연동 증권자투자신탁 UH/H [채권-재간접형] ※[illegible] ▶환매시 제8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 지급 ( )는 17시 경과 후 환매시 적용
▶총보수: Class A 연0.668%(판매 연0.50%, 운용 연0.12%, 기타 연0.048%) Class C 연0.968%(판매 연0.80%, 운용 연0.12%, 기타 연0.048%) ▶선취판매수수료: Class A 납입금액의 0.5% Class C 없음
▶환매수수료: Class A 없음, Class C 3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30% ([illegible])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집합투자재산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안전하게 보관 관리되고 있습니다. ※본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어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취득하시기 전에 환매방법과 보수 등 관련된 세부 사항은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true friend 한국투자신탁운용

국내외 소외층에 '희망 전진기지' 심다

한국 경제의 주역 건설산업 65주년 특집 기획 시리즈

<4>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건설산업(끝)

집·학교·놀이터 등 무상건설…사회공헌 앞장

대한민국 성장의 힘으로 불리는 경부고속도로가 상징하는 대로 지난 60년간 한국경제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건설산업.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을 비롯해 주택난 해결을 위한 주택 건설로 전국 주택 보급률 100% 시대를 열었는가 하면 70년대 중반부터는 건설산업의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면서 당시 어려웠던 국내 경제에 가뭄 속 단비 같은 역할을 했다.

그러나 이면에서는 건설업계의 과열 경쟁과 부패 관행 등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으로 질타를 받으며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이에 건설업계 자성의 움직임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사회공헌 활동이다.

전국에 흩어져 있는 건설현장을 사회공헌의 전진기지로 삼아 소외계층을 보살피고 사회안전과 청결, 문화·교육 발전을 선도하며 우리 자연과 도시의 환경을 가장 아름답게 가꿔나가겠다는 각오가 오늘날 이어져 다양하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나타나고 있다.

◆ 건설 특성 살린 나눔활동

건설산업의 사회공헌 활동의 특징은 건설업의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현대건설은 경기도 남양주시 외국인근로자복지센터에 국내 이주여성들의 자활을 돕기 위한 '다문화 카페'를 신축하고 복지센터의 수납공간을 교육센터로 리모델링한 '살림장터'의 완공했다.

삼성건설은 한국해비타트의 최대 후원사로 2000년부터 소외 이웃들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보금자리를 지어주고 있다. 특히 올해는 천안 목천읍에 112가구의 '희망의 마을'을 완성하였으며 올해 총 16가구의 보금자리를 더 짓고 저소득 무주택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또 대우건설은 '푸른 사랑 놀이터' 캠페인을 전개하며 저소득층 아동들에게 청결하고 아름다운 놀이터를 나눠주고 있다. 이외에도 국가유공자 노후주택 무료 보수 지원사업(대림산업), '사랑의 집 짓기'(삼구건설 등), '학대받는 아동의 편안한 쉼터 만들기'(STX 건설) 등 그 나눔의 형태와 대상도 각양각색이다.

포스코건설에서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창단한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

부영건설이 2003년부터 베트남 등의 국가에 짓고 있는 피아노 기증 사업.

◆ 국경 넘은 활동 풍성

국내 대형건설사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나눔활동도 국내를 넘어 세계 각지에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다.

부영은 2003년부터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동티모르, 태국,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피지, 브루나이, 방글라데시 등 아태지역 14개국에 초등학교 600여 곳을 무상으로 지어주고 피아노 6만여 대와 교육용 칠판 60만 여개를 기증하는 등 해외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기부문화 확산에도 앞장서고 있다.

현대건설은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필리핀 등 각지에서 저소득 가정 아이들과 청소년을 지원하고 있다. 포스코 건설은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대학생 봉사단 '해피빌더'를 창단하고, 해외 의료봉사를 비롯해 유치원 건립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상준기자 pjs@metroseoul.co.kr

한국선수끼리 '스타2' 결승전

상하이 BWC 열기 후끈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중국에서 볼 수 있다니 정말 기쁘다. 특히 한국 선수들을 실제로 보니 세계 최강의 경기력을 지녔다는 것이 실감난다."

상하이 양포구에서 온 왕 쑤쩐(25·여)의 말이다.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가 주최하는 '배틀넷 월드 챔피언십(BWC)'이 중국을 흔들었다. 지난 17~18일 이틀간 중국 상하이 엑스포파크에서 개막된 BWC 행사장은 전 세계 게이머들과 중국인들로 가득 찼다. 150위안(약 2만7000원)에 이르는 티켓은 일찌감치 동이 났다.

BWC는 전 세계 600명이 넘는 게이머들이 참여해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스타크래프트2(스타2)' 선수 32명과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와우)' 아레나 10개 팀이 참여해 세계 챔피언을 가렸다.

18일 저녁 열린 스타2 결승전은 한국 선수들 간의 대결이었다. 장민우(스타테일)를 4 대 2로 누른 원이삭(스타테일)이 세계 정상에 올랐다. 3위도 정윤종(SK텔레콤)이 차지해 e스포츠 최강국인 한국의 위상을 재확인했다.

미국 시카고 일리노이에서 온 조쉬 루치(29)는 "경기를 지켜보니 한국 선수들이 세계 최강이라는 것이 실감난다. 앞으로 군단의 심장이 출시되면 전 세계 e스포츠는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BWC는 블리자드 e스포츠 전략의 정점에 있는 행사다. 현장을 찾은 마이크 모하임 CEO는 이번 상하이 BWC로 불을 지핀 스타2 e스포츠화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 그는 "내년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하면서 스타2 e스포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하이=김지성 기자 lazyhand@metroseoul.co.kr

애니팡 손 못뗀 7600만명 '야호!'

NHN 모바일메신저 '라인' 스마트폰 게임 4종 출시

해외에서 국내의 카톡만큼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모바일 메신저 '라인'이 전 세계 7600만 사용자를 대상으로 4종의 스마트폰 게임을 선보였다.

신작들이 '애니팡' '캔디팡'에 버금가는 수익을 낸다면 포털 사업에서 정체기를 맞고 있는 NHN이 새로운 판로를 찾을 수 있다.

19일 글로벌 시장에 나온 4종의 신작은 퍼즐 게임 '라인 팝', 타워디펜스 게임 '라인 카툰워즈', 아구대전 게임 '라인 홀린 배틀 버스트', 수직 슈팅 게임 '라인 뫼타포코 애니멀'이다. 이들 게임은 이용자들이 '라인' 친구들과 게임 순위를 비교하는 등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라인 연동 시스템'을 모두 적용했다.

iOS 버전과 안드로이드 버전을 모두 제공하며 영어와 일본어로 서비스한다. '라인 팝'은 한국에도 출시되지만 한글 지원은 하지 않는다. NHN은 이번 4종 게임 출시를 시작으로 연내 10종 이상의 게임을 서비스할 계획이다.

NHN은 지난 7월 '라인 윈드러너'와 '라인 버블'을 글로벌 시장에 첫선을 보였으며, 출시 1일 만에 200만 다운로드, 97일 만에 1000만 다운로드를 기록하며 글로벌 게임 유통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입증했다.

/박상준기자 pjs@metroseoul.co.kr

라이나 '고령자전용 암보험' 든든

라이나생명보험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암보험인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을 출시했다.

고령자의 암보험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나이 제한 또는 연수 기준 등으로 가입이 어렵고 특화상품이 지 부족한 실정이다.

라이나생명은 보험시장에서 소외된 고령자에 대한 보험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판단에 국내 최초로 고령자 전용 암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이 상품은 고령자의 가입을 원활히 하기 위해 질병에 대한 무심사를 적용해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

무배당 실버암보험(갱신형)은 61세에서 75세까지의 고령자가 가입 가능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10년 만기 암보험 상품으로, 10년 단위로 갱신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위암, 대장암, 간암 등 일반암(유방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때 최초 1회에 한해 암 치료보험금 최대 2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암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받았을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400만원을 보장받는다. /박상준기자

명품 중에 명품 한우입니다

오랜 시간 변치 않는 남다른 품질과
고집스러운 장인정신이 명품을 만들어내듯,
오천년을 이어온 한우농가의 고집과 정성이
명품 한우 브랜드를 탄생시킵니다.

세상 그 어떤 명품보다 더 값진 이름,
바로 한우입니다.

맛있습니다!

한우는 고기의 맛과 질감을 좌우하는 올레인산이 다른 수입육보다 훨씬 많아 육질이 부드럽고 육즙이 풍부합니다.

우리 몸에 좋습니다!

한우는 수입육에는 없는 유전인자가 5가지 있습니다 한우는 단백질 필수 아미노산, 올레인산, 각종 비타민, 칼슘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한 건강 보양 음식입니다

신선합니다!

우리 땅에서 정성스럽게 키운 한우, 산지에서 갓 올라온 한우는 그 어떤 수입육보다 신선합니다

약속합니다!

한 점 한 점 이름을 걸 었습니다. 한우는 쇠고기이력제를 통해 소비자들이 안 선택할 수

휴대기기 입력기술로 세계 석권

이번 주 채용기업

Crucial
크루셜텍㈜

크루셜텍㈜는 휴대기기 입력장치 전문기업이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입력기술인 광학 트랙패드를 비롯해 모바일 보조 광원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 3000억원을 돌파하고 2010년에는 코스닥에도 상장했다. 특정 부품이 아닌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시장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세계 최초 개발기술인 옵티컬트랙패드는 97%라는 놀라운 시장 점유율을 자랑한다. 이에 그치지 않고 올해 신제품 메트리스 스위칭 터치스크린 패널(MS-TSP)을 완성했다.

크루셜텍은 2013년 대졸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이다. 관련 전공자로 기졸업자 및 2013년 2월 졸업 예정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회로설계, HW·SW개발, 생산관리, 해외영업, 마케팅, R&D기획, 전산 등 총 11개 부문으로 지원자는 25일까지 크루셜텍 홈페이지(www.crucialtec.com/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커리어 제공

‘채용보장’ 인턴십 잡아라

근무 뒤 테스트 거쳐 정규직 전환시켜 주는 동계 채용 잇따라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든 동계 인턴십 채용 소식이 쏟아지고 있다.

인턴십 평가를 통해 입사 가점을 부여하거나 아예 인턴십 참가자만을 대상으로 신입사원을 뽑는 등 입사 특전도 풍성하다. 취업포털 커리어(www.career.co.kr)의 도움을 받아 동계 인턴십 소식을 알아본다.

LG전자(www.lge.co.kr)는 한국마케팅본부의 인턴사원을 다음 달 2일까지 뽑는다. 지원자격은 4년제 대학(원) 2012년 기졸업자 및 2013년 2월, 8월 졸업 예정자로서 전 학년 평균 B학점 이상, 토익 700점 수준의 영어성적을 소지해야 지원할 수 있다.

합격자는 다음 달 중순부터 내년 2월까지 근무하게 되며 최종 테스트를 통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한다. 궁금한 사항은 26일 서울스퀘어 3층에서 열릴 예정인 마케팅 캠프 설명회를 참조하면 된다.

◆ ‘스펙 무제한’ 특별전형 눈길

애경그룹 유통부문(recruit.akmembers.com)은 22일까지 인턴을 채용한다. 응시자격은 4년제 대졸 또는 내년 상반기 졸업예정자로서 전 학년 평균 2.7점 이상(4.5점 만점 기준), 토익 730점 이상에 준하는 어학성적 보유자면 된다. 학력, 전공, 성별, 연령 등의 제한이 전혀 없는 ‘열정 캐스팅’ 특별 전형도 함께 진행한다. 애경그룹은 이번 인턴십 수료자 중에서 내년도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jobagent.co.kr)는 인턴 공개를 22일까지 진행한다. 모집분야는 기술영업, 컨설팅·운영컨설팅, 영업의 3개 분야로 두 자릿수의 인턴을 채용할 계획이다. 4년제 대학(원) 2012년 8월 졸업자 또는 내년 2월과 8월 졸업예정자면 전공에 상관없이 응시 가능하다. 내년 1월부터 두 달간 근무하게 되며 평가 후 우수 인턴은 대졸 신입사원으로 채용할 방침이다.

KEC(www.kec.co.kr)는 24일까지 하반기 인턴을 뽑는다. 이번 인턴 채용은 대졸 인턴과 전문대졸 인턴으로 나뉘며 모집분야는 기술개발, 일반사무 등 5개 분야로 동일하다. 인턴기간은 3개월간이며 근무 평가 결과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이밖에 한국투자신탁운용(www.kim.co.kr)은 주식운용 분야의 동계 인턴을, 밀레니엄서울힐튼(www.hilton.co.kr)은 판촉부, 재정부, 식음료부 인턴을 각각 26일까지 선발한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주간 채용캘린더

20(화)	포스코(경력), 한국듀폰코에, 한국토봉산업진흥재단(신입)
21(수)	대방건설(신입), 고양도시관리공사, 근로복지공단
22(목)	삼성중공업, 애경그룹 유통부문(인턴)
23(금)	지오다노, LG디스플레이(경력), 한국공항공사(경력)
24(토)	전북대학교TIC, 세인트존스메디컬코리아(경력)
25(일)	삼성메디슨(경력), 현대건설(경력), 노루페인트, 크루셜텍(신입)
26(월)	부산도시공사(신입),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취업포털 커리어와 함께하는

주간 인기 취업검색어

1위 외국계 채용
2위 정규직 채용
3위 공모전
4위 사무보조 아르바이트
5위 항공업계 채용

*11월 13~19일 인기검색순위

체계적 커리큘럼 탐나 일본인도 입학

한반도의 미래와 동북아 정세를 읽는 열쇠인 일본학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일본어와 일본 문화를 비롯한 일본학을 제대로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를 추천한다.

◆ 원어민 교수의 생생한 일본어 강의

"저처럼 일본어의 기본도 모르는 사람이 과연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까 염려가 컸지요. 그러나 스터디 모임에서 그 고민을 씻을 수 있었어요. 조금 위주의 수업으로 알기 쉽게 진행되어 잘 따라갈 수 있었고 선배님들이 친절하게 안내해줘서 일본어 실력이 일취월장했어요!"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11학번 윤영한(26)씨는 학교 스터디 모임을 통해 일본어 실력을 탄탄하게 키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윤씨는 "기초 일본어부터 중급, 고급, 자격시험, 무역영어, 번역까지 체계적인 일본어를 배울 수 있었어요"라며 웃었다.

교수진의 약 30%가 원어민 교수인 점도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의 자랑이다. 일본 유수 대학 출신 원어민 교수들의 생생한 일본 문화와 일본어 강의는 단연 인기다.

학과 특성화 사업으로 방학마다 열리는 오프라인 강의 '원어민의 일본어 특강'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직장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녁 시간에 진행되며 초급 일본어부터 정확한 발음 지도와 기초 회화까지 음미할 수 있다.

◆ 일본대학 학위의 문이 활짝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는 일본 도미코미이 코마자와대학과 죠사이국제대학 등과 국제 교류를 맺고 있다. 이들 대학에 유학할 경우 학비 50% 감면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4학기 이상을 수료한 재학생이면 누구나 국제교류를 신청할 수 있다.

작년 겨울방학에는 일본 오이타현 소재 벳부대학으로 2주간 현지 어학연수와 일본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일본학과 박상현 학과장은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살아있는 일본어를 배우며 어학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와 사회를 온몸으로 체험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 교과과정은 일본어와 함께 일본문화, 일본학 과정이 균형 있게 편성돼 있다"면서 "일본의 과거·현재·미래를 통시적으로 보면서 각 분야에 걸친 일본을 이해하기 위해 주력한다"고 덧붙였다.

◆ 일본인도 만족하는 커리큘럼

일본인 요시이즈미 야요이(41)씨는 한국인 남편과 결혼해 3명의 아이를 기르는 전업주부이자 한국-일본 무역가를 꿈꾸는 학생이다. 야요이씨는 한국에서 일본 관련 사업을 구상하고자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11학번으로 캠퍼스 생활을 시작했다.

야요이씨는 "일본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배울 수 있어 일본인으로서 일본학 공부가 참 재밌다"면서 "내가 몰랐던 부분을 새롭게 알게 되는 등 경희사이버대 입학 결정은 탁월한 선택"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상현 학과장은 "학생들이 국가의 벽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생각하고 바른 일본관을 형성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학과의 목표"라며 "경희대 어학당에 연수 온 일본 학생과 한대인 상호 도우미 수업, 일본 홈스테이, 일본어 캠프 등 실용적인 일본어 공부는 물론 일본 학생들과의 교류를 통해 일본을 바로 알아가는 머리 프로그램을 진행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학과장은 "특히 우리 대학은 1수업 1조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업에 수업 조교가 배치되어 학생들의 고충을 친절하고 빠르게 해결해 온라인 수업에 불편 없이 참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장윤희기자 unique@metroseoul.co.kr

'가깝고도 먼 나라' 제대로 가르치는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경희사이버대학교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2013학년도 신·편입생을 모집한다. ▲정보문화예술 ▲사회과학 ▲국제지역 ▲경영 ▲호텔관광외식 등 5개 학부 19개 학과에 지원 가능하며, 대학원은 현재 원서접수 중으로 다음 달 12일까지 신입생을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학부(02)959-0000, 홈페이지 www.khcu.ac.kr/ipsi, 대학원(02)3299-8808, 홈페이지 grad.khcu.ac.kr)으로 문의하면 된다.

30%가 원어민 교수… 생생한 일본문화·일본어 전수
겨울방학마다 어학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만의 특징

1. 일본학 전반에 걸친 체계적 커리큘럼
2. 일본대학 국제 교류로 유학 기회 풍성
3. 원어민 교수가 진행하는 일본어 특강
4. 활발한 스터디 모임과 선후배 간 교류
5. 취업 기회가 많고 대학원 진학에 도움

■ 독서토론모임 '독토'를 아시나요

일본학과 대표 스터디 '독토'는 한 달에 한 권씩 지정 도서를 읽고 오프라인 모임에서 의견을 나누는 독서토론 모임이다. 온라인 수업과 각종 오프라인 모임으로 일본학과 학생들은 공부의 효율성과 캠퍼스의 낭만을 동시에 만끽한다.

일본 유학 꿈 이룬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출신 3인

교수님 도움 덕분에 와세다대학생 됐죠

08학번 이혜현씨

일본 최고 명문 사학 와세다대학교에 다니는 이혜현(25)씨는 합격의 공을 온전히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에 돌렸다.

08학번인 이씨는 사회 생활과 학교 공부를 병행하느라 신입생 시절 학업 포기까지 생각했단다.

이씨는 "유학 결심부터 원서 작성까지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아서 걱정이 컸다"면서 "합격 비결은 학과 교수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이라고 감격스러워했다.

또 "학교 생활을 통해 열심히 사는 학생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에 고마움을 표했다.

사이버대 발판 삼아 죠사이국제대 유학

10학번 신동연씨

경영학도였던 신동연(28)씨는 일본에 관심을 갖던 차에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에서 일본대학 유학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접하고 10학번으로 새로운 대학 생활을 시작했다.

학과장 교수님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며 공부에 매진한 결과 신씨는 일본 지바현에 있는 죠사이국제대학 유학에 성공했다.

신씨는 "2년 동안 경희사이버대에서 공부한 내용들이 앞으로 일본 유학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는 내 꿈을 향해 한걸음 나아가게 해준 훌륭한 발판"이라고 활짝 웃었다.

포기하지 않고 노력 日 대학원 박사과정

06학번 신용상씨

아티스트의 꿈을 위해 정진하는 신용상(41)씨는 현재 규슈산업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게임디자인 예술학교 사진학과 출신인 신씨는 생각과 학문의 폭을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에 장소 구애 없이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경희사이버대 일본학과 06학번으로 입학했다.

일본 도쿄에 머물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던 그는 일본에서 사이버대 공부를 하는 학우들과 함께 스터디를 꾸리며 공부했다. 신씨는 "포기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향해 노력하다 보니 소망이 이뤄졌다"며 "만학도라도 주저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응원했다.

경희사이버대학교 개설학과 및 대학원 개설전공

모집단위(학부)	학과
정보문화예술학부	미디어문예창작학과 미디어콘텐츠디자인학과 (구 멀티미디어디자인학과) 디지털미디어공학과 (구 정보통신학과) 문화예술경영학과
사회과학부	NGO학과 사회복지학과 노인복지학과 공공서비스행정학과 (구 행정학과)
국제지역학부	일본학과 중국학과 미국학과 한국어문화학과
경영학부	e-비즈니스학과 자산관리학과 글로벌경영학과 세무회계학과
호텔관광외식학부	호텔경영학과 관광레저경영학과 외식농산업경영학과 (구 외식농수산경영학과)
대학원	**전공**
호텔관광대학원	호텔외식MBA 전공 관광레저컨벤션경영 전공
문화창조대학원	미디어문예창작 전공 글로벌한국학 전공

변별력 없는 수능식 공부론 'NEAT' 빵점

윤선생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 대비전략 설명회

짧은 시간내 말하기·쓰기 등 직접수행 강화 전략적 사고·다독 통한 배경지식 키우도록

교육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얻고자 하는 학부모의 니즈도 늘고 있다. 이에 윤선생영어교실은 전국 센터에서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규모 또는 소규모 형태의 'NEAT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윤선생영어교실 둔촌교육본부에서는 '최근 교육 이슈와 NEAT 대비전략'이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를 들으러 온 60여 명의 학부모들로 강의실 안은 북새통을 이뤘으며, 윤선생영어교실 교육팀 엄민수 강사가 영어교육정책의 전반적인 이슈와 NEAT 대비 영어학습법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엄 강사는 최근 교육정책 이슈로 '교과교실제 시행'과 '서술형평가 강화'를 꼽았다. "우리가 수준별 이동수업으로 많이 알고 있는 교과교실제는 2014년부터 전면 시행하겠다고 교과부에서 밝힌 바 있으며, 서술형 평가의 경우 현재 전국 실시 비율이 22%를 넘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엄 강사는 "이러한 교육정책의 공통적인 흐름은 바로 평가방식의 변화"라며 "앞으로 서술형 평가나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을 확대하여 평가 변별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평가 방식 중 하나가 바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NEAT: National English Ability Test)이란 기존 지필 평가와 달리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시험(iBT)으로 듣기, 읽기 위주에서 벗어나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을 모두 평가하는 시험을 말한다.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객관식 문항 형태인 기존 수능과 달리 '직접 말하고 쓰는 이른바 직접 수행형'이라는 점이다. 또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영역이 4개 등급(A~D)으로 각각 기재되어 모든 영역을 균형 있게 학습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는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에 대비해 어떻게 영어 공부를 해야 할까?

먼저 직접 말하고 쓰는 방식인 말하기, 쓰기 영역은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풀어 생각을 정리하는 전략적 사고 능력을 키워야 한다. 말하기의 경우 문항별로 1분 동안 준비, 1분 동안 녹음을 해야 하고, 쓰기 영역은 제한된 시간에 주어진 그림, 도표 등을 보고 논리적으로 글을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 특정 주제에 대해 떠오르는 생각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나서 글을 작성하는 '아이디어 맵'을 통해 글쓰기 훈련을 해야 실전에서 신속하고 논리적으로 글을 완성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듣기, 읽기 영역은 지문을 듣거나 읽은 뒤 4지 선다형 답안을 선택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시험에 등장하는 소재가 기초 학술 소재와 일상적인 실용 소재가 7대3 비율로 출제되는 만큼 평소 다독을 통해 풍부한 어휘력과 배경지식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엄 강사는 "단순히 자녀에게 무조건 책을 많이 읽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책을 읽고 난 후에 책 내용에 대해 질문을 주고 받으면서 아이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현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한다. '넌 이번 결말을 어떻게 느꼈니?', '너라면 어떻게 하겠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 등의 질문을 해주면서 평상 시에 훈련을 시켜주면 서술형 시험이나 NEAT를 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이경미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 NEAT시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이번 설명회를 듣고 나니 앞으로 어떻게 차근차근 준비해야 할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박성훈기자 [illegible]

다음달 두차례 'NEAT 1급 예비시험'

영어 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고, 취업 및 승진에 활용해 해외 영어시험(TOEIC)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개발중인 국가영어능력평가(NEAT) 1급 예비시험이 다음달 8일과 21일 전국 80여개 시험장에서 치러진다.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1급)은 지식기반 및 국제화 시대에 필요한 비즈니스 환경에서 필요한 실용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성인대상 시험으로, 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국제교육원, 서울대, 고려대, 한국외대, 숙명여대, 대한상의가 함께 개발 진행중이다.

성인용 1급 시험은 4개영역(듣기, 읽기, 말하기, 쓰기)의 94문항을 155분간 컴퓨터를 이용한 인터넷 기반검사(IBT) 방식으로 평가한다. 이번 시험은 18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전국 17개시도 80여개 시험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원서접수는 23일까지며 1차 시험은 12월 8일이고, 2차 시험은 21일이다. 성적통지는 내년 2월 22일이며 응시료는 무료다. /박성훈기자

윤선생 생활 영어상식

야구 유격수는 'shortstop'

유격수는 2루와 3루 사이의 지역을 수비하는 내야수를 말하는데요, 영어로는 shortstop이라고 합니다.

Dickson's Baseball Dictionary에 의하면, 그 포지션은 원래 니커보커 룰(현대적 의미의 야구 경기의 최초 규칙)이 적용됐던 당시에 쇼트 필더(short fielder)라고 칭했으나 1850년대 들어 쇼트스탑(shortstop)으로 바뀌었습니다.

쇼트 필드(short field: 유격수의 수비 범위, 2루와 3루 사이의 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유격수의 방어적 기능을 좀 더 부각할 수 있도록 창조된 단어입니다.

예) It's a line drive to left field right between third base and the shortstop. (유격수와 3루수 사이를 가르는 직선 타구입니다.)

* 자료제공: 윤선생영어교실(www.yoons.com)

ASK YOON 윤선생에게 물어보세요

니트·토셀·펠트·스펠링 비…뭘 준비할까

Q 요즘 초등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영어인증시험이 뜨거운 이야깃거리인데요, 실제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이승희·33)

A 아이의 영어실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나 기업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쳐보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화두가 된 국가영어능력평가시험(이하 NEAT, www.neat.re.kr)은 학생의 실질적인 영어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부에서 개발,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기존 수능 영어가 읽기, 듣기 중심이었다면 NEAT는 말하기와 쓰기 영역이 포함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시험방식 또한 지필 형태가 아니라 인터넷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치르는 IBT(Internet Based Test) 방식이므로 응시자들은 언어의 4대 영역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를 고르게 학습함은 물론 인터넷 기반 시험(IBT)에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TOSEL(www.tosel.org)은 EBS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관하고 대한민국 대학입학수학능력시험 출제위원을 역임한 교수들이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한 시험으로, 수능출제위원들이 문제를 만들고 지문에 교과과정이 반영되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보다 실질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국외국어평가원에서 실시하는 PELT(www.pelt.or.kr)는 단순점수제가 아닌 '급'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PELT kids는 가정과 학교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통해 듣기능력 실력과 더불어 기본적인 표현능력을 측정하고, PELT Jr. 1~3급은 영어 듣기·읽기·어휘·문법을 평가합니다. 가정·학교·사회생활에서의 표현을 그림이나 글을 통해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200점 만점 중 120점 이상 득점해야 합격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영어철자 말하기 대회인 '스크립스 내셔널 스펠링 비(Scripps National Spelling Bee)'의 한국대표를 선발하는 '내셔널 스펠링 비(www.koreansb.com)' 대회는 국제영어대학원대학교 주최로 매년 2월 열립니다.

최종 우승자는 5월말~6월초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세계대회에 한국대표로 참가하게 되며, 이와 관련된 모든 경비는 윤선생영어교실이 후원합니다.

자녀 영어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ASK YOON 홈페이지(www.askyoon.com)에 남겨주시면 [illegible] 전문가들이 답변을 달아 드립니다.

11월, 철없는 겨울세일

이른 추위타고 롯데·현대 등 주요백화점 23일부터 일제히 돌입

극단 오가는 내년 봄 스타일 토종 패션브랜드 지앙 드 슈에뜨가 15일 서울 광장동 악스홀에서 2013 봄·여름 콜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네덜란드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초현실적인 그림 '쾌락의 동산'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이너 김미현은 클래시한 소재와 경키한 컬러, 커니시한 테일러링과 소녀스러운 디테일 등으로 여성이 가지고 있는 상반된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이날 무대에서는 몸 곡선을 그대로 드러내는 뷔스티에에 끈이 없는 롬파 롱성 된 소재의 오버 사이즈 의상이 눈길을 끌었다. /박지원기자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겨울 정기세일이 일찍감치 시작됐다.

백화점은 물론 온라인몰·패션 브랜드들이 따끈따끈한 '겨울 신상'에 할인 가격표를 달았다.

세일의 포문은 지난 16일 아이파크백화점이 열었다. 24일까지 목도리·장갑·점퍼 등을 최대 50% 저렴하게 판매한다. 앨르 목도리는 1만원, 엔클라인 장갑은 2만원이다.

혹한이 예상되는 올 겨울 몇 이어템은 따뜻한 신발. 금강제화는 내일(2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최대 30%까지 할인하는 '윈터 세일'과 어성 부즈 15만원 특가 코너를 운영한다. 전국 400여 개 금강제화·랜드로바·브루노말리·헬리한센 매장에서 실시하며 신발뿐 아니라 핸드백과 의류도 할인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겨울 추위에 대비한 기획전이 한창이다.

롯데닷컴은 22일까지 '2012 가을·겨울 시즌 오프' 행사를 실시한다. 수입명품·잡화·의류 등을 최대 40% 싼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옥션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필수 방한용품 한 가지를 특가에 내놓는다. 푸마 패딩점퍼는 3만원대, 유니덱스 스탠드 히터는 9900원에 선보일 예정이다.

겨울 세일은 이번 주엔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롯데·현대·신세계·갤러리아·AK플라자 등 주요 백화점은 23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겨울 정기세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백화점은 이 기간 패딩·코트·장갑 등 겨울 의류·소품을 할인하는 초대형 이벤트를 전진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박지원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볼트 에너지' 뜨거운 인기

에너지음료 중 판매량 2위

해태음료가 출시한 볼트 에너지 블루&레드(Volt energy)가 순풍 중이다.

볼트 에너지 블루는 블루베리 과즙을, 볼트 에너지 레드는 드로피컬 과즙을 넣어 기존 에너지 음료보다 부드럽고 상큼한 맛을 낸 것이 특징. 여기에 '정열의 열매'라고 알려진 과라나추출물을 비롯해 천연 카페인 타우린 1000mg(250ml 기준) 비타민B군 등을 넣었다. 과라나는 아마존 원시림 정글에서만 자라는 식물로 브라질에서는 과라나로 만든 음료가 국민 에너지 음료로 통한다.

볼트 에너지 블루&레드는 전류 전압을 뜻하는 볼트(Volt)의 의미를 담아 용기 표면에 'V' 디자인을 새겼다. 편의점 기준 가격은 1000원.

지난 10월 전국 GS25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에너지 음료 중 하루 평균 판매량이 2위에 오르는 등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회사 측은 말했다.

해태음료는 볼트 에너지 블루&레드의 인기를 반영해 내년 1월 31일까지 이벤트를 연다. 볼트에너지 제품의 캔 따개 속 난수를 프리스타일 풋볼 홈페이지(fsf.joycity.com)에 등록하면 프리스타일 풋볼 이 이템을 100% 지급한다. /전효순기자

와! 토리버치도 놀랄 가격

마리오아울렛 22일까지 명품 최대 60% 할인

마리오아울렛이 22일까지 해외 명품브랜드 제품을 20~60% 할인해 파는 '해외 명품 대축제'를 진행한다. 프라다·구찌·페라가모·지방시·마크제이콥스 등 총 16개 브랜드가 참여한다.

펜디 피카부백 20%, 마크제이콥스 스탐백 40%, 마이클코어스 '해밀턴백'은 60% 할인된 가격으로 내놨다. 코치와 토리버치의 신제품은 60%까지 값을 내렸다. 돌체앤가바나의 청바지는 19만원대부터 살 수 있다. 50만원 이상 구매 시 3만원 상품권, 100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는 6만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마리오아울렛 관계자는 "연말 시즌을 맞이 고객들이 오프라인 최저가로 명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연년 감사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전효순기자

What's New Shopping

3040위한 '투웨니스' 출시

애경이 30~40대 여성을 겨냥한 메이크업 브랜드 '에이지 투웨니스'를 론칭, 오늘(20일) 홈쇼핑 채널 '롯데홈쇼핑'을 통해 소개한다.

자생식물인 백랑금 추출물과 히알루론산, 에데노신 등을 넣어 피부 탄력 증진과 주름 개선 기능을 챙긴 제품이다. 방부제 파라벤·동물성 원료·민트·페녹시에탄올·광물유 안정제 벤조페논을 뺀 피부 자극이 적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가격은 베이스, 파운데이션, 컨실러, 립스틱 등 7종 한 세트에 8만9000원.

롯데홈쇼핑 '나무하나' 론칭

롯데홈쇼핑이 유명 디자이너 패션잡화 브랜드 '나무하나'와 계약을 단독 론칭한다. 청담동 명품거리 1세대 디자이너 전현정 대표가 직접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부츠를 내놓는다. 내일(21일) 오후 11시50분 론칭 방송에서 소가죽 웰부츠(29만9000원), 양가죽 히프부츠(22만9000원), 핸드백(13만900원), 주얼리(19만9000원) 등을 판다.

비싼 돈 들여놓고 혹시 '장롱 보청기?'

복음보청기 창립 30주년 기념 사용자 위한 세미나

복음보청기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외국인 전문가 등을 초청해 서울 종로3가 센터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보청기의 사용법을 알기 쉽게 재교육하고, 보청기의 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소개도 있을 예정이다.

보청기 제조업체 아시아 본부가 밀집해 있는 싱가포르의 히어링솔루션그룹의 매니징디렉터이자 30년 이상 보청기 업계에 종사한 보청기 전문가가 세미나 강연자로 나선다.

실제로 고가의 보청기를 구매 후 사용하지 않고 서랍 속에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부분 보청기의 초기 적응에 실패하거나, 보청기 사용법을 제대로 인지 못하는 등 맞춤 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이다.

보청기는 착용 초기 적응하는 기간이 짧게는 1개월에서 6개월까지의 시간이 소요된다. 사용 만족도는 같은 제품이라도 개인 적응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상담사의 전문지식과 세심한 맞춤형 기술이 매우 필요한 요인이다.

이번 세미나는 사전 예약을 통해 보청기 사용자라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세미나 참석자에게는 푸짐한 경품을 제공하고, 세미나 기간 동안 보청기를 구매하면 할인 혜택까지 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bokeum.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2268-3377 /김민지기자

제 7회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알레르기질환 공개강좌 및 무료검사

"알레르기 치료제의 모든것"

일시 2012. 12. 1(토) 13:30-17:30

장소 성동구청 3층 대강당 (왕십리역 4번출구 도보3분)

사전 등록

- 등록기간 11월 1일(목) ~ 11월 28(수)
- 등록방법 홈페이지 사전예약 www.atopyinfocenter.co.kr
  문의전화 1577-7581

세부일정

시간	내용	강사
13:30-14:00	등록	
14:00-14:10	인사말	윤호주 센터장 | 서울특별시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 한양대병원 호흡기내과
14:10-14:40	아토피피부염 강의	김현정 | 서울의료원 아토피·천식 센터
14:40-14:50	질의응답	
14:50-15:10	천식 강의	정재우 | 을지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15:10-15:20	질의응답	
15:20-15:40	알레르기비염 강의	조석현 | 한양대병원 이비인후과
15:40-15:50	질의응답	
15:50-16:00	행운권 추첨	
16:00-17:30	무료 알레르기 피부시험 및 판독	

알레르기 피부시험은 2006년 출생자(만6세)부터 가능합니다

참석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동반 가족분 모두 홈페이지에서 행사접수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 당일 주차시설이 불편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하여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주최

주관

수능시험 끝난 19세 화장보다 헤어 관심

CJ올리브영 구매현황 눈길

드러그스토어 CJ올리브영이 수능시험이 끝난 지난 8일부터 일주일간 멤버십카드인 CJONE카드를 소지한 19세 소비자들의 구매 현황을 조사한 결과, 헤어 스타일링 제품의 판매량이 제일 많이 뛰었다. 머리카락 색상을 바꿀 수 있는 염모제(169%)와 파마 효과를 내는 스타일링 소품(173%) 제품들은 2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색조 화장에 대한 관심도 늘어 립스틱 틴트 같은 립메이크업 제품은 70%, 아이라이너·마스카라·아이섀도 등 아이메이크업 제품은 이전보다 42% 매출이 올랐다.

/전효순기자 hsjeon@

숲비정원 럭셔리 캠핑이 '넝쿨째'

제주신라호텔 가을패키지 25~30일 2박 투숙시 혜택

이국적인 멋이 가득한 제주신라호텔에 쌀쌀한 조계을 캠핑의 낭만을 선물한다.

제주신라호텔에 럭셔리 캠핑 오픈 2주년을 기념해 25~30일까지 가을 여행 패키지로 2박 이상 투숙하는 고객에게 선착순으로 '럭셔리 캠핑' 무료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럭셔리 캠핑이 마감될 경우 제주산 최고급 식재료만 사용하는 뷔페 레스토랑 '더 파크뷰' 디너 2인권 으로 대체한다.

제주 여행자들의 로망으로 손꼽히고 있는 제주신라의 럭셔리 캠핑에서는 아름다운 숲비 정원에서 그림 같은 경치를 감상하며 맛있는 바비큐를 즐길 수 있다.

이 호텔 관계자는 "그동안 럭셔리 캠핑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고 귀띔했다.

가을 여행 패키지를 이용하면 은은한 달빛 아래 즐기는 야외 수영, 아르헨티나 공연팀의 탱고 페스티벌, 따뜻한 숲비 자쿠지와 핀란드 사우나, 니어트 프라이빗 비치 하우스 등을 경험할 수 있다.

이밖에 클럽식 와이너리 투어 2인 이용권, 조식 2인권, 객실 인터넷 무료 이용이 포함돼 있다.

가격은 29만~40만원(1박 2인 기준, 세금·봉사료 별도). 문의 www.shilla.net/jeju 1588-1142

/박지원기자

할리스는 '타임캡슐 배달부' 할리스커피가 올해 말까지 '타임캡슐 우체통' 이벤트를 연다. 매장에 비치된 할리스 캘리그라피 엽서에 직접 손글씨로 편지를 쓰고 할리스 타임캡슐 우체통에 넣으면 1년 뒤인 2013년 12월에 배송되는 행사다. 우체통 이벤트는 청계1가점, 신사가로수길점, 대구 동성로점 3곳에서 실시된다.

'보더족의 두 로망' 휘닉스파크-버튼 손잡다

보광휘닉스파크가 LG패션의 스노보드 브랜드 버튼과 전략적 업무 제휴를 맺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휘닉스파크는 2018년까지 렌털용 보드장비를 버튼의 최신 장비로 교체하고, 공동 마케팅을 벌인다. 또한 국내 최초로 어린이 전용 슬로프를 운영하고 세계 스노보드 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등 면축 활동을 강화한다.

휘닉스파크 김성준 총괄 전무는 "이번 제휴를 통해 휘닉스파크를 찾는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마케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버튼은 전 세계 스노보드 시장의 4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 브랜드로 60여 개국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다.

/박지원기자

15일 서울 대구평동 LG패션 본사에서 휘닉스파크와 스노보드 브랜드 버튼이 전략적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김성준 보광휘닉스파크 전무, 차순철 LG패션 전무

티켓몬스터 <Goodbye 2012 연말모임 기획전>, 송년회 장소 찾기 고민 해결!

2012년도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바야흐로 송년회 시즌이 찾아 온 것이다. 기업이나 단체들은 연말 회식 장소나 송년회 장소를 찾는 데 여념이 없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적은 예산으로 좋은 회식 장소를 섭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송년회 장소 찾기를 책임지 이 아닌... 좋은 곳은 벌써부터 예약이 어렵다. 유명한 곳을 선택하자니 비용이 부담되고, 저렴하면서 맛 좋은 음식점을 선택하기에는 이미 예약이 가득 차 있다. 과연 모두가 만족할 만한 송년회 장소는 없을까.

최근 송년회 문화가 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역시 송년회는 음식점에서 하는 것이 모든 이들을 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장소로 적합한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8%가 올해 예정된 송년회 장소가 음식점 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음식점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음식점이 아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맛있으면서 분위기까지 챙길 수 있는 다양한 메뉴의 맛집이라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송년회 모임을 가질 수 있다.

이에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www.tmon.co.kr)'가 송년회 장소 때문에 고민인 이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바로 <Goodbye 2012 연말모임 기획전>을 진행하는 것. 대규모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과 보장된 맛, 저렴한 가격까지 1석 3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송년회 핫 플레이스만을 엄선했다.

그 동안 수많은 맛집들을 소개해 온 티켓몬스터가 철저한 검증을 거쳐 엄선한 곳이기 때문에 보다 믿고 선택할 수 있다.

티켓몬스터 연말 기획전을 이용한다면, 여기저기 검색할 번거로움 없이 간편하게 장소를 선택할 수 있고 가격도 반값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다.

회식의 단골 메뉴 한우도 이번 기획전을 이용한다면 보다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다. '청담한우등심'에서는 입에서 살살 녹는 꽃등심을 먹으면 부채살을 공짜로 먹을 수 있다. 이외에도 티켓몬스터 연말기획전에서는 고기집을 비롯해 라이브 뷔페, 생맥주 집, 한식 등 다양한 음식 메뉴의 맛집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처럼 티켓을 이용해 회식을 진행할 경우, 영수증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 비용 청구를 하기 곤란했던 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티켓몬스터 연말모임 기획전은 이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배려했다. 티켓을 구매하면 구매내역에서 실물 영수증을 바로 출력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런 불편함 없이 회식을 진행할 수 있다.

티켓몬스터 관계자는 "이번 연말 기획전은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식 비용에 대한 부담 없이 연말 모임이나 각종 회식, 송년회를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1년 동안 고생한 동료, 그동안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 못한 가족과 함께 보다 여유로운 연말 모임을 즐기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직 송년회 장소를 정하지 못했다면, 티켓몬스터의 <Goodbye 2012 연말모임 기획전>을 만나보자. 업체별로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곳을 찾았다면 서둘러 예약하는 것이 좋다.

'여유의 문' 스르륵 깊은 감성 주르륵

2년만에 새 앨범 들고 돌아온 섹시퀸 손/담/비

손담비가 연기자로 외도를 끝내고 2년 만에 가요계로 돌아왔다. 우리 나이로 서른이 된 그는 성숙한 '섹시 퀸'의 매력과 여유를 네 번째 미니앨범 '눈물이 주르륵'에 담았다.

#임팩트 보다 전체적 흐름에 무게 중심

지난주 방송 3사 음악 프로그램에서 컴백 신고를 끝낸 그는 19일 인터뷰에서 "오랜만에 서서 긴장되기도 했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흥분된 마음으로 무대를 즐겼다"며 다시 마이크를 잡은 소감을 밝혔다.

1년 전에 이번 타이틀곡 '눈물이 주르륵'을 받고 앨범을 준비했지만 드라마 '빛과 그림자'에 출연하면서 공백이 길어졌다. 드라마가 끝난 후 4개월 동안 가사의 분위기에 맞게 곡과 안무 수정을 수차례 반복했다.

"임팩트를 앞세웠던 예전 곡들과 달리 전체적인 흐름이 중요했죠. 머리카락을 쓸어올리는 춤이나 얼굴과 목을 쓰다듬는 눈물 닦는 춤 등 안무들이 부드럽게 이어지도록 많은 신경을 썼어요."

준비 기간을 포함해 1년간 연기 활동에 전념한 것도 무대를 꾸며가는 데 큰 힘이 됐다. "많은 선배님의 조언을 듣고 배우다 보니 연기에 좀 더 적응할 수 있게 됐어요. 감정 표현 방법도 배웠고, 가수로 무대에 섰을 때도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었죠."

2년 만에 돌아온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여유'다. '미쳤어'와 '토요일 밤에'를 연달아 히트시킨 정상의 가수였지만 늘 쫓기는 듯한 조급한 마음이 자신을 괴롭혀 왔다. 무대를 떠나있는 동안 일상의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고, 마음을 고쳐먹는 계기가 됐다.

"인생에 있어서 일이 중요하지만, 일상의 여유가 없으면 일도 방해를 받더라고요. 친구들과 수다를 떨고, 산책을 다니고, 뮤지컬을 보면서 평범한 삶 속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죠. 신기하게 일도 잘 풀리더라고요."

앨범 출시 직전 케이블 채널 tvN 'SNL 코리아'에 출연해 능청스럽게 섹시 코미디 연기를 선보인 것도 여유에서 비롯된 변화다. 무대에서 전하는 도도한 이미지와 실제 모습이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시각적인 부분까지 보여주며 대중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다.

#"수록곡 '사랑하고 싶었어' 내 이야기 같아"

솔로 여가수로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한 그는 30대에 접어든 올해부터 손담비의 진가를 보여주겠다고 자신했다.

"늦게 데뷔해서 지난 5년간 앞만 보고 달려왔어요. 예전부터 빨리 30대가 되길 바라왔어요. 좀 더 풍부하게 느끼고 표현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 때문이었죠. 제가의 색깔을 이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보다 성숙한 모습으로 '미쳤어'나 '토요일 밤에'를 뛰어넘는 음악을 계속하는 게 목표에요."

이번 앨범 수록곡 중 '사랑하고 싶었어'는 한층 깊어진 감성을 느낄 수 있는 발라드다. 원태연 시인이 작사한 것으로 손담비의 사랑과 결혼에 대한 생각과도 맞닿아 있다.

"가장 넣고 싶었던 곡이었어요. 마치 내 얘기를 쓴 것 같았죠. 주위에 워낙 결혼을 많이 해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 일단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게 우선이잖아요. 좋은 사람이 있다면 결혼하고 싶어요."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사진/(주)큐브&매니지먼트/디자인/박선영

Star bag

아이유 신곡 깜짝 공개

가수 아이유가 22일 정오에 두 번째 깜짝 신곡을 발표한다.

그의 신곡 작업은 소속사 식구들도 모를 만큼 비밀리에 진행됐으며, 특히 YG엔터테인먼트의 양현석 대표가 직접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다. 이하이는 앞서 1, 2, 3, 4로 올해 데뷔한 신인가수 중 온라인 음원차트 최장기간 1위를 기록한 바 있다.

김성규 솔로음반 발표

인피니트의 리더 김성규가 솔로음반 '어나더 미'를 발표했다.

19일 공개된 타이틀곡 '60초'는 인피니트의 히트곡 '추격자'와 '내꺼하자'를 작곡한 작곡팀 스윗튠의 작품으로 사랑에 빠지는 데 걸리는 시간과 이별하는 데 걸린 시간을 의미한다. 뮤직비디오에는 멤버 콜이 출연해 힘을 보탰다. 소속사는 "오직 김성규의 음악에만 집중한 음반"이라며 첫 솔로 활동에 기대를 당부했다.

모델 장윤주 2집 발매

모델 장윤주가 정규 2집 '아임 파인'을 발매했다.

4년 만에 발표하는 정규 앨범으로 맑고 깨끗한 목소리에 슬픈 감성을 담아냈다. 타이틀곡 '아임 파인'과 '오래된 노래' 등 장윤주가 작사, 작곡한 10곡이 수록됐다. 앨범 프로듀싱은 1인 밴드 푸디토리움이 맡았고, 가수 나얼에 보컬 디렉팅에 참여했다.

김수현 입대?… 신검 받아

배우 김수현이 19일 서울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았다.

소속사 키이스트는 "김수현이 시기가 되어 신체검사를 받고 온 것은 맞지만, 군 입대와 관련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한편 김수현은 내년 개봉 예정인 웹툰 원작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를 촬영 중이다.

싸이 이번엔 AMA 뉴미디어상

래퍼 MC해머와 합동공연 시상식 피날레 장식

싸이가 미국 3대 음악 시상식의 피날레를 장식하며 세계 정상의 팝스타임을 입증했다.

그는 19일 열린 '제40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 초청돼 마지막으로 무대에 올라 유명 래퍼 MC해머와 합동 공연을 선보였다. MC해머는 1980~90년대 팝계를 대표한 가수로 '유 캔트 터치 디스' 등 히트곡으로 국내에서도 큰 인기를 얻었다.

두 사람은 MC해머의 히트곡 '투 레지트 투 퀴이트'와 싸이의 '강남스타일'을 리믹스해 무대를 꾸몄다. 싸이는 지난주 마돈나의 월드투어 미국 뉴욕 공연에서 함께 커플 춤을 춘 데 이어 또 한 번 세계적인 스타와의 공연으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는 '그래미 어워즈', '빌보드 뮤직 어워즈'와 더불어 미국의 대표적인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꼽힌다. 특히 대중상을 가장 중요시하는 시상식으로 가수들의 인기 현주소를 가늠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싸이는 이번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가장 인기 있는 뮤지션에게 시상하는 '뉴미디어상'을 수상했다. 유튜브 등 SNS를 통해 전 세계 팝 팬들을 사로잡은 싸이를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된 상이다. /유순호기자 suna@

MC해머(왼쪽)와 싸이가 '제40회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엔딩 무대를 끝낸 후 손을 잡고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AP 뉴시스

<홍종현·김우빈·박성현>

차세대 꽃남 공통점은

'화이트 크리스마스' 출연 경력

올 겨울부터 내년까지 안방극장을 후끈하게 데울 차세대 꽃미남 스타들이 모두 한 뿌리에서 나와 눈길을 끈다.

지난해 방송된 KBS2 드라마 스페셜 연작시리즈 '화이트 크리스마스'에서 각각 미르·재규 무열로 출연한 김우빈·홍종현·백성현이 그 주인공이다.

방영 당시 시청률은 5%를 밑돌았지만 소년 특유의 불안한 자아를 신인답지 않은 섬세함으로 소화한 이들은 '퇴폐 복인'을 양산하며 기대를 모은 바 있다.

21일 첫 방송될 KBS2 수목극 '전우치'에서 미남 배우의 전유물로 여겨지는 종사관 캐릭터를 거머쥔 홍종현은 182cm의 장신으로 화려한 액션 연기를 선보인다.

다음 날 3일 방송되는 '학교 2013'에서는 김우빈이 전설의 '일짱' 박흥수를 맡아 아웃사이더 특유의 거친 모습을 과시한다.

누나들의 귀요미 백성현은 내년 2월 방송될 '아이리스2'에서 한국 측 국가안전국(NSS)의 천재 해커 보완 강병신 역을 맡아 지적인 매력을 발산할 예정이다.

이밖에 JTBC '우리가 결혼할 수 있을까'로 '홍드 신드롬'을 이끌고 있는 철부지 예비 남편 정훈 역의 성준과 자유분방한 독신주의자 기종 역의 김영광 역시 '화이트 크리스마스' 출신이다. /권보람기자 kwon@metroseoul.co.kr

홍종현 김우빈 백성현

한지민 첫 일본 단독 팬미팅 1000여명 환호

배우 한지민이 데뷔 후 처음으로 연 일본 단독 팬미팅을 성황리에 마쳤다.

그는 18일 도쿄 요미우리홀에서 일본 팬 1000여 명과 만나 손수 준비한 편지를 낭독하고 팬들과 일일이 악수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여주인공으로 출연한 드라마 '옥탑방 왕세자'의 OST인 백지영의 '항상 제나서'를 부르며 숨겨진 노래 실력을 공개해 뜨거운 환호를 받았다. 소속사 측은 "이번과 같은 규모는 한국 여배우의 일본 단독 팬미팅 규모로서는 이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박찬헌기자 lokc@

2012년 11월,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MUSICAL

셜록홈즈

앤더슨가의 비밀

SECRET OF THE ANDERSON FAMILY

2012.11.20(화) - 2012.12.31(월) | 숙명아트센터 씨어터

인터파크 1544-1555 / 예스24 1544-6399

동방신기 음반시장 주도권 잇는다

후속곡 '휴머노이드'로 인기몰이… 티저영상도 공개

동방신기가 연말까지 국내 음악시장 주도권을 이어간다.

5월 6집 '캐치 미'를 발표하고 '어느 때보다' 긴 국내 활동을 펼쳤던 이들은 후속곡 '휴머노이드'로 인기고삐를 더욱 조인다. '휴머노이드'는 6집에 수록되지 않았던 곡으로 다양한 리듬 패턴과 장르가 혼합된 실험적인 사운드의 일렉트로닉 곡이다. 가사에는 새로운 세대에게 더 나은 미래를 열기 위해 고민하며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았다.

동방신기는 17~18일 열린 단독 콘서트에서 이 곡을 최초로 공개해 큰 호응을 얻었다. 19일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을 공개했으며, 조만간 향후 활동 계획을 결정한다.

이들은 '캐치 미'로 활동하며 '얼음 댄스', '드래곤 댄스' 등 특유의 강렬한 퍼포먼스를 유행시켰고 음반차트 1위를 차지하는 등 변함 없는 인기를 확인했다. 23일과 25일 싱가포르와 태국 방콕에서 열리는 'SM타운 라이브 월드 투어'에 참가한다.

/유순호기자 sun@

가슴 먼저 울린 고문영화

Film Review

/이혜린 칼럼니스트 lolahope@naver.com

■ 남영동 1985

올해 초 '부러진 화살'로 사법체계의 부조리를 고발했던 정지영 감독이 1970~80년대 우리 현대사의 아픔 중 하나인 '고문'을 소재로 한 '남영동 1985'로 다시 한번 대중과 만난다.

잘 알려져있다시피 '남영동 1985'는 지난해 말 세상을 달리한 고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 직접 쓴 수기를 바탕으로 한 영화다. 민주주의를 위해 남영동 공안분실에서 두려움과 고통의 나날을 보냈던 민주 인사에 대한 감사와 미안함을 그들이 당했던 적나라한 고문을 통해 표현한다.

군부 독재가 기승을 부리던 1985년 9월 4일, 민주화 운동가 김종태(박원상)는 가족들과 목욕탕을 다녀오다 갑작스럽게 경찰에 연행돼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간다. 이곳은 경찰 공안 수사 당국이 인권을 무시한 채 잔혹하게 고문하던 장소로, 김종태도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며 물고문과 전기고문에 무너진다. 그리고 고문 기술자 이두한(이경영)까지 가세하고, 그의 잔혹한 22일이 계속된다.

군부 독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자행된 고문에 대해선 고문 피해자들의 글이나 전해오는 이야기로만 들었을 뿐이다. '탁' 치니 '억' 하고 죽었다는 고 박종철 고문 치사 사건은 민주화의 횃불로 피어올라 온 국민을 분노케 했다.

그런데 이제껏 우리 한국영화는 그 야만의 모습을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다. 아니 전 세계 영화도 '남영동 1985'처럼 관객들을 모질게 그 현장의 목격자로 만들진 않았다. 그래서 가슴이 먼저 뜨거워진다.

요즘 관객들은 어두웠던 과거에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영화로 과거의 역사를 들이보게 만들어 가슴뿐만 아니라 머리도 뜨거워지게 했으면 좋겠다. 정지영 감독과 출연배우들, 스태프들의 건투에 박수를 보낸다. 22일 개봉. 15세 이상 관람가.

'호빗' 캐릭터 배지·모자 반자

다음달 13일 개봉 앞두고 관객수 맞히기 경품행사

판타지블록버스터의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호빗: 뜻밖의 여정'이 다음 달 13일 개봉을 앞두고 관객수 맞히기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영화에 대한 기대평과 예상 관객수를 남기는 주관식, 예고편 감상 후 예상 관객수를 선택하는 객관식에 각각 응모하는 방식으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예매사이트 맥스무비, 씨네21과 영사모 등에서 26일까지 진행된다. 추첨을 통해 극중 호빗 원정대의 모습이 담긴 캐릭터 배지 세트와 모자로 구성된 '호빗 스페셜 패키지'가 주어진다.

이 영화는 1500만 관객을 동원한 '반지의 제왕' 시리즈의 프리퀄로, 3부작의 시작이다. '반지…'의 피터 잭슨 감독이 다시 메가폰을 잡아 전작을 능가하는 영상 혁명에 도전한다.

사나운 용 스마우그에게 빼앗긴 난쟁이족 왕국을 되찾기 위해 모험을 떠난 호빗 일보가 어떻게 '절대 반지'를 얻게 되는지를 그린다. 간달프 역의 이안 맥켈런과 골룸 역의 앤디 서키스 등 '반지…'의 흥행 성공을 이끌었던 주요 출연진이 또 뭉쳤다.

/조성준기자 when@metroseoul.co.kr

오디션 프로 '…K팝 스타2' 출발이 좋다

SBS 오디션 프로그램 '일요일이 좋다-K팝 스타 2'가 쟁쟁한 실력자들의 출연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출발했다.

19일 시청률 집계 기관 AGB닐슨 미디어리서치에 따르면 전날 방영된 첫 회는 전국 기준 14%의 시청률을 기록해 동시간대 1위에 올랐다.

경쟁작인 KBS2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은 지난주보다 10.3%포인트 하락한 8.5%, MBC '나는 가수다2'는 0.3%포인트 오른 5.2%에 머물렀다.

이날 'K팝 스타2'는 시즌1에 버금가는 실력파 참가자들을 대거 선보여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몽골에서 온 남매 이찬혁(16)군과 이수현(13)양으로 구성된 악동뮤지션은 자작곡 '다리꼬지마'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고, 최예근(16)양은 천부적인 피아노 실력과 독특한 기창 스타일로 심사위원 전원에게 합격 판정을 받았다.

/탁진현기자 tak0427@

Chungmu Art Hall · OD Musical Company
present

당신을 위한
새로운 브로드웨이 뮤지컬

뮤지컬

브루클린

BKLYN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우리 노래를
들어봐!

충무아트홀 중극장 블랙

2012년 12월 4일~2013년 2월 24일

|주최| 충무아트홀 |기획·제작| OD |주관| 오픈리뷰

|문의| 멍당찾기 2230-6601 오픈리뷰 1588-5212 |예매처| 멍당찾기 | 오픈리뷰 | 인터파크 | 옥션 | 11번가 | yes24 | 클럽서비스

“음악 힐링 선물…거리공연 ~ing”

'슈스케4' 출신 1호 가수 김민준

엠넷 '슈퍼스타K4' 출신 중 가장 먼저 가수 타이틀을 달았다. 하늘로 떠난 아버지에게 바치는 자작곡 '유 메이크 미 스마일'을 발표한 김민준(23)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내 꿈은 가수"라며 활짝 웃었다.

지금은 중퇴했지만, 건국대 서양학과 재학 당시 축제 오프닝 무대에 초대될 정도로 명물이었다. 아이돌이나 연기자 데뷔 기회도 있었지만, 늦은 나이에 군에 입대하고 '슈스케'에 나갈 정도로 '현업 가수'에 대한 신념은 확고했다.

방송 출연 이후 훤칠한 외모와 가창력으로 대중의 기대를 받았지만, 악플 동영상이 퍼지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인생이 끝난 것만 같았던 그를 일으켜 세운 건 같은 보컬 동아리(소울피스트) 출신 가수 케이윌과 에이트 이현이었다.

이후 기타 하나 메고 대학가를 중심으로 공연을 진행했다. 대학은 지금도 전국 5개 도시를 돌며 거리 버스킹을 이어간다.

오디션 프로그램으로 알려졌기에 보통의 신인가수보다 힘든 길을 가야 할 수도 있지만 두렵지 않다. "중요한 것은 음악으로 들려드리는 것이라 생각해요." 음악으로 세상의 모든 이들을 위로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힌 그는 내년 정식 음반 발매까지 준비해 둔 자작곡을 차곡차곡 꺼내놓을 예정이다.

인터뷰를 마치며 '슈스케4'의 예상 우승팀을 살짝 물었다. "사실 (김)정환이가 우승하길 바랐는데, 떨어져서 아쉬워요. 진솔하게 자신의 색깔을 담아내는 로이킴이 가장 유력한 우승후보 같아요."

/권보람기자

'클레오파트라' 배우 찾습니다

전 배역 공개 오디션…내달 5일까지 접수

내년 한국에 처음 공연되는 프랑스 스펙타클 뮤지컬 '클레오파트라'가 전 배역 공개 오디션을 개최한다.

프랑스 뮤지컬 안무의 거장 카멜 우아리가 2009년 세롭게 선보인 이 작품은 역사 속 클레오파트라를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캐릭터로 표현했다. 안무가의 작품답게 플라잉, 아크로바틱 등 파격적인 무대가 돋보인다. 프랑스 초연 당시 50만 관객을 동원하고, 그해 NRJ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그룹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과 대중성을 인정받았다.

국내 무대는 '몬테크리스토', '햄릿' 등에 참여한 박인선이 연출을 맡고, '라카지'의 서병구가 안무, '미녀는 괴로워', '베노포즈' 등을 만든 변희석이 음악감독으로 참여한다.

공개 오디션에서는 주인공 클레오파트라는 물론 안토니우스, 시저 등 주·조연급 배우와 플라잉, 아크로바틱, 비보잉, 현대무용 등에 능숙한 연기자들을 대거 모집한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5일까지로 e메일(cleopatre.kr@gmail.com) 지원이 가능하다. 문의 02)720-2277 /김민준기자

또디

wind8686@naver.com

지금 daum 소셜댓글에서는 **와글와글**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보고…

주말 동안 대선 판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야권 후보 단일화가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안철수 후보가 구태 정치인과 다를 바 없고 문재인 후보도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시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단일화는 요원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두 후보를 끝까지 믿은 결과 전날 밤 두 후보는 '새정치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개혁 의지가 민주당에 관철됐고 문 후보도 민주당 쇄신 과정에서 통 큰 결단으로 위기를 극복했다.

정권교체를 희망하는 사람들은 5년 동안 너무 짓눌려 있었기 때문에 작은 흔들림에도 동요되는 것 같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선언문을 읽으면서 마음 한구석이 시원함과 기대감이 생긴다면 야권 단일 후보에게 투표하는 것이 맞다. /가람

구심

최근 두 후보 지지자들이 서로 비난하는 모습이 보기 안 좋았다. 건전한 비판은 좋지만 서로 상처받을 비난은 하지 말자

에타리안

월로은의 저편이 생각난다. 권력이라는 에이를 국민의 걸강을 위해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영미다

체트라이

지금처럼 감정싸움이 계속된다면 단일화 승리해도 한나라당 '친이', '친박'처럼 패가 나뉘어 싸울 것이다. 패배하면 서로 탓하라고 비난할 것이다

할트마을

단일화 성공해도 박근혜 후보와 박빙이다

최강

단일화는 될 테고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문재인으로 될 확률이 높은 것 같다. 필요한 것은 안 후보 지지자들의 이탈을 방지하는 것이다. 정치쇄신모음이나 중도무당층이 문제다 /정리=김현철기자

전국민 영어회화 프로젝트 New English 900

문장 학습법의 창시자 코넬리우스의 4단계 기초회화 훈련법

Day 10 What's the date today? 날짜와 장소

New English 900
공식 카페 cafe.naver.com/ne900

출처: New English 900 Vol.1
본 지면은 New English 900 Vol.1의 서울판입니다

영어 동문장 익히기

▶ 우리말 먼저 보고 영어로 0.5초 내로 말하기 도전

146. 매디슨은 제 고향이에요.
147. 당신은 어디서 자랐어요?
148. 전 시카고에서 자랐어요.
149. 당신은 어느 학교에 다녔어요?
150. 전 매디슨 고등학교를 다녔어요.

▶ 이제 두 번 큰 소리로 말하고 외워보세요.

146 Madison is my hometown.
147 Where did you grow up?
148 I grew up in Chicago.
149 Where did you go to school?
150 I went to Madison high school.

반복 훈련으로 자동 암기하기

▶ 짧은 대화 훈련

146~150 문장 중에서 우리말에 해당하는 표현을 찾아 말해보세요.

A Where did you 자라요? Did you grow up in New York?
B Yes, I grew up in New York.

정답 grow up

▶ 패턴 훈련

각 단어를 넣어 말해보세요.

1 Where did you go to [school / college]?

2 I went to Madison [high school / university].

ETS TOEIC Reading Prep Book

01 The president of Garou Electronics stated that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the company was a personal responsibility of _____.

(A) his (B) himself
(C) he (D) him

02 _____ he arrives at the airport in the next ten minutes, Mr. Santini is going to have to take a later flight.

(A) Regardless (B) While
(C) Unless (D) Rather

01. 시루 전자의 사장은 회사의 재무 성과가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이었다고 말했다.
정답 (A) his

02. 10분 후에 공항에 도착하지 않으면 산티니 씨는 더 늦은 비행기를 타야 할 것이다.
정답 (C) Unless

ETS TOEIC Speaking Prep Book

Part 3 듣고, 질문에 답하기

Question 4, 5에 답변하기

• 두 가지를 묻는 경우

Q. When do you usually wear jewelry, and what kind of jewelry do you prefer to wear?

핵심문장 I wear jewelry when I go to school, and I prefer to wear simple earrings.

추가문장 However, I wear very big jewelry at parties.

• 추가 문장의 예

이유 말하기 Because I feel comfortable when wearing simple ones.

예시 말하기 For example, I wear tiny silver earrings.

습관 말하기 I usually pick jewelry which goes well with my outfit in the morning.

첨가하기 And / Also, I wear a watch.
But / However, I wear a watch on the weekend.

본 지면은 YBM의 컨텐츠로 구성됩니다 ybmBooks.com 02)2000-0515

What's Hot

SK 해피뮤지컬스쿨이 2013년 1월 27일까지 까회 얼전을 가진, 2013년 신입생을 모집한다. 뮤지컬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진이 연기·노래·탭댄스·뮤지컬댄스 등 체계적으로 실기 수업을 진행하고 전용 연습실은 물론 졸업 공연을 올릴 전용 무대를 갖추는 등 최적의 교육환경을 지원한다. 문의 skhappyschool.com

12~17일 서울 코엑스에서 6일간 진행된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제5차 당사국 총회가 '담배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한 의정서' 채택 등 가시적 성과를 남기고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은 전시된 WHO FCTC 제5차 당사국 총회 성공 개최 홍보샷 우수작 및 포스터를 시민들이 보고 있는 모습.

LG전자가 15일 LG베스트샵 강남본점 매장을 공식 오픈하며 국내 프리미엄 가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 이 매장은 ▲할인 고객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체험과 편의 공간을 확대한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 ▲최첨단 전략 제품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관 ▲유리 쇼케이스·LED 스크린 외관으로 매장 밖 고객과도 소통하는 오픈형인 것이 특징이다.

롯데칠성음료는 16일 인천 국제공항에서 코스타리카로 떠나는 '칸타타 스틱커피 원두원정대' 발대식을 가졌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달 칸타타 스틱커피 원두원정대 in 코스타리카 이벤트를 통해 7명의 원정대원을 선발했으며 원정대는 이날부터 23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코스타리카와 커피농장을 둘러보며 커피 여행을 하게 된다.

국내 최초 자연건강 석사과정 개설

원광디지털대 웰빙대학원 2013학년도 신입생 모집중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은 다음 달 10일까지 2013학년도 1학기 신입생을 모집한다.

원광디지털대학교 웰빙문화대학원 자연건강학과는 약선과 요가·명상 분야에 집중해 심신 건강을 선도하는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자연건강전문가를 양성하는 국내 최초의 석사 과정이다.

장학금 혜택도 20~50%로 다양하다. 특히 직장인들에게 수업료 감면 장학금이 주어지며 본교 졸업자, 가족 2인 이상이 동반 입학(재학)하는 경우에는 수업료 감면 및 입학금 면제 혜택도 있다. 또한 사회 소외계층 및 장애우 장학금, 단체협약 장학금, 성적 장학금, 학습 장학금 등 다양한 형태 혜택으로 학생들의 학업 부담을 덜고 있다.

국내외 4년제 대학 졸업자나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자세한 모집요강은 홈페이지(wdu.ac.kr) 또는 문의전화(070-7730-1960)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레스모아 겨울부츠 축제 손짓

다음달 2일까지 할인 풍성

레스모아는 다음 달 2일까지 할리데이 신나는 겨울 '부츠 축제'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레스모아에서 판매하는 부츠 구매 시 기본 5%를 할인해주며 BC카드 결제 시 최대 1만원 할인 혜택의 기회를 제공한다. KB카드 고객 또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를 최대 5000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어 현금 없이 카드 포인트만으로도 저렴하게 부츠를 구입할 수 있다.

특히 헤어지우 구매 시 흘어지기 쉬운 부츠를 바로잡아주는 부츠 전용 키퍼를 증정하고 10만원 이상 털부츠 또는 스노우 부츠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최고급 양말 장갑을 선물한다.

전국 레스모아 오프라인 매장 및 온라인몰(lesmore.com)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트렌디한 헤더부츠부터 보온성과 방수성 모두 갖춘 패딩부츠, 스타일리시한 스웨이드부츠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나볼 수 있다.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한성대서 성황리 폐막

한성대학교가 17일 주최한 '외국인 한국어 뽐내기 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83개의 외국인 팀이 예선에 참가, 치열한 경쟁을 거쳐 최종 11개 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진출팀은 몽골, 방글라데시,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적의 외국인들로 구성됐으며 6년생 주부에서 32년생 학생, 외국인 근로자까지 그 연령대와 직업 또한 다양했다.

각 팀은 '김치', '무궁화'와 같이 한국을 상징하거나 '독수리 오형제', '기집애들' 등 톡톡 튀는 팀 명으로 관객들의 관심을 집중시켰다. 또한 '한국인 style(스타일)', '한국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요?', '나는 부산 스타일' 등 한국 문화에 대한 재치와 생각을 연극, 콩트 등 다양한 형태로 발표하며 한국어 실력을 뽐냈다.

IBK기업은행 소외층 우대채용

하반기 22명 최종 선발

IBK기업은행은 2012년도 하반기 신입 행원 공채에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전문대 졸업자 등 사회적 약자 계층 22명을 포함해 모두 235명을 최종 선발했다.

기업은행은 이번 공채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및 전형 기회를 넓히기 위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자녀와 그동안 정규직 채용에서 소외됐던 전문대 졸업자를 별도 그룹으로 분류해 우대 채용했다.

먼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은 총 414명이 지원했고 이후 필기시험과 실무·임원면접을 거쳐 최종 12명이 합격했다. 또한 전문대 출신의 경우 총 482명이 지원해 10명이 최종 합격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역경을 딛고 이겨낸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더 큰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열린 채용'을 보다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바이게스 복고 니트 제어아일 체크 끌리네

지하이게스는 이번 겨울 시즌 따뜻한 느낌을 주는 페어아일 패턴과 편안한 느낌의 체크 패턴 아이템이 다양하다. 특히 활용하기 좋아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페어아일 패턴은 눈꽃 무늬와 기하학적 도형 등이 타탕한 컬러와 배합돼 클래식하고 따뜻한 느낌을 준다. 원색 계열보다 인디언 핑크, 버건디, 올리브 등 톤 다운된 컬러가 활용된 스타일이 트렌드로 빈티지한 느낌을 주는 것이 특징이다.

시즌과 상관없이 사랑받는 체크의 경우 강한 체크 패턴의 셔츠를 선택했다면 비비드한 톤 컬러 아우터를 레이어드해 멋진 복고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에나멜한 모노톤 오버사이즈 코트에 체크 스타일, 체크 가방 등으로 포인트를 주면 세련된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구로구 '민원서비스 우수' 인증

행안부 첫 시행제도 수혜

서울 구로구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서와 현판패를 받았다.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정안전부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것으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과 기관의 서비스 의지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했다. 구로구는 민원 행정에 대한 민원실 환경 및 제도 개선 정과, 전담조직 구성, 민원서비스 평가 및 피드백, 기관장 관심도 등의 지표에서 특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구로구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여권접수·교부창구의 칸막이, 조류기기 교체 등 민원실 환경을 개선했고 찾아가는 민원 창구, 장애인·어르신 전용 창구,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수화통역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민원인에게 민원서류를 무료로 배달해주는 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hat's Cool

한국스마트카드는 (주)GS리테일과의 제휴를 통해 GS25에서 티머니 또는 팝티머니로 유제품 결제 시 구매 금액의 20%를 캐시백해주는 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우유, 요구르트 등 모든 유제품에 적용되며 다음 달 31일까지다.

파나소닉코리아는 22일 국내 최대 여성 전용 커뮤니티 파우더룸 회원들을 대상으로 '헤어스타일링 클래스'를 개최한다. 이 클래스에서 셀프 헤어 스타일링 팁, 드라이 팁 등 트렌디한 헤어 스타일링 비법, 머리결이 좋아 보이는 드라이 연출법 등 전문가 헤어드라이어 하나로 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을 공개한다.

KFC는 신메뉴 '그릴 다리살 버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치킨 통다리살을 그대로 오븐에 구워 부드럽고 담백한 치킨 패티와 신선한 토마토, 아삭한 양상추 등 다양한 재료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새콤한 할라피뇨 마요 소스가 어우러져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15일부터 무제국연하장을 전국 우체국과 인터넷(www.epost.go.kr)을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연하장에는 새해를 축하하고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십장생도를 소재로 한 카드가 눈길을 끈다. 특히 입체형으로 제작되어 책상 위에 장식용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매일유업의 '바나나는 원래 하얗다'가 2012 대한민국 패키지 디자인 대전에서 '팩스타 상'을 수상했다. 이 제품은 지난 7월 패키지 리뉴얼 이후 전년 동기 대비 18.3%(시장조사업체 AC닐슨, 지난 8~9월) 판매량이 증가하는 등 리뉴얼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제품이다.

수제머핀 커피전문점 미노린은 지하철 상권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한 브랜드 론칭 4주년을 기념해 '미노린의 Thanks giving 팩스 기획' 이벤트를 실시한다. 30일까지 미용 고객에게 스탬프 카드를 지급하고 미노린 음료 1잔 구매 시마다 스탬프 1개를 증정한다. 스탬프 4개를 모으면 레귤러 사이즈 음료 1잔, 8개를 모으면 미노린의 인기 머핀을 모은 베스트 머핀 4개 세트를 받을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15일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복지의 변화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심포지엄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앞으로 경기복지재단은 경기도 소재 사회복지서비스기관들의 협동조합 설립(전환)이 더욱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협동조합기본법을 중심으로 경기도의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흔 4년 31억 두산행 뜨거웠던 FA시장 마감

홍성흔(36)이 4년 만에 두산행을 확정지으며 2012 FA(자유계약) 시장이 막을 내렸다

두산은 19일 홍성흔과 4년간 계약금과 연봉 등 총액 31억원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999년 두산에 입단해 팀의 간판선수로 활약한 홍성흔은 첫 FA 자격을 얻은 2009년 롯데로 이적했다 올 시즌 113경기에 출장해 15홈런 74타점 타율 0.292로 맹활약했다 14시즌 동안 타율 0.303, 166홈런 915타점을 기록했다

두산은 "홍성흔이 롯데 이적 후에도 팀의 중심 타자로 변함없는 장타력과 팀 공헌도를 보여줬다"며 "고참 선수로서 파이팅 넘치는 리더십으로 팀 전체 분위기를 이끌고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훈기자

◆ 2012 스토브리그 FA 계약 현황

소속	선수명	계약 현황
삼성	정현욱	4년 28.6억 LG행
롯데	김주찬	4년 50억 KIA행
	홍성흔	4년 31억 두산행
SK	이호준	3년 20억 NC행
LG	정성훈	4년 34억 잔류
	이진영	4년 34억 잔류
KIA	김원섭	3년 14억 잔류
	유동훈	2년 7.5억 잔류
	이현곤	3년 10.5억 NC행
한화	마일영	3년 [illegible]억 잔류
넥센	이정훈	2년 5억 잔류

최나연 LPGA 화려한 대미 장식

CME 타이틀 홀더스 우승…코리언 남자군 시즌 9승 합창

최나연 축하해! 최나연(오른쪽)이 19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대회인 CME 그룹 타이틀 홀더스 우승을 확정 짓자 박인비가 샴페인을 뿌리며 축하해주고 있다 /AP 뉴시스

'영향골퍼' 최나연(25)이 CME 그룹 타이틀 홀더스에서 우승하며 올 시즌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대미를 멋지게 장식했다

최나연은 19일 끝난 대회 마지막 라운드에서 더블보기 1개, 보기 1개를 쏟아내고도 이글 1개, 버디 3개로 2타를 줄여 합계 14언더파 274타로 우승했다 7월 US여자오픈 이후 4개월 만의 우승으로 올 시즌 2승째이자 개인 통산 7승을 수확했다

우승상금 50만 달러를 보탠 그는 누적상금 198만1834달러(약 21억6000만원)로 스테이시 루이스(187만2409달러)를 끌어내리고 상금랭킹 2위로 뛰어올랐다

최나연과 우승 경쟁을 펼쳤던 유소연은 12언더파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상금왕과 베어트로피까지 2관왕을 확정한 박인비는 공동 11위(6언더파)로 대회를 마쳤다

◆ 박인비 2관왕·유소연 신인왕

코리안 낭자군 역시 올 시즌을 풍성하게 마무리했다 청야니의 독주에 밀려 3승에 그쳤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나비스코 챔피언십 US여자오픈 브리티시여자오픈 등 3개 메이저 대회를 포함해 9승을 수확했다

박인비는 시즌상금 228만7080달러로 상금왕을 확정했고 시즌 70.21타의 평균 타수를 기록해 70.33타에 그친 루이스를 따돌리고 최저타수상인 베어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8월 제이미 파 톨레도 클래식에서 개인 통산 2승을 일군 유소연은 올해 톱10에 무려 16차례 이름을 올리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2년 가까이 무관의 서러움을 보낸 신지애는 7월 킹스밀 챔피언십에서 폴라 크리머와 연장 9개 홀을 치르는 접전 끝에 우승하더니 바로 다음 주 브리티시오픈을 제패하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올해 한국과 미국, 일본 투어의 상금왕을 휩쓸었다 김하늘이 4억5889만원으로 국내 상금왕이 됐고 일본에서는 전미정이 1개 대회가 남은 가운데 1억3182만 엔(약 17억7000만원)으로 상금 부문 1위를 확정했다 한·미·일 3개 투어 상금왕을 독식한 것은 2010년(한국-이보미, 일본-안선주, 미국-최나연)에 이어 두 번째다 /김민준기자 mjkim@metroseoul.co.kr

박주영 2호골! 3연패 팀 건지다

에레라 감독 "위치 선정 탁월 훌륭한 선수" 극찬

박주영(27 셀타비고)이 시즌 2호골을 터뜨리며 연패에 빠진 팀을 구해냈다

박주영은 19일 오전 열린 2012~2013 프리메라리가 12라운드 마요르카와의 홈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11분 이스파스가 깔아준 크로스를 문전으로 쇄도하며 오른발로 밀어넣어 동점골을 넣었다

최근 3연패에 빠졌던 셀타는 1-1로 비겨 귀중한 승점 1을 챙겼다 박주영은 9월 22일 헤타페전 마수걸이골에 이어 두 달 만에 골 맛을 봤다 특히 90분 내내 활발한 움직임으로 파코 에레라 감독의 눈도장을 받았다

에레라 감독은 경기 후 "박주영은 아주 훌륭한 선수다 그는 언제나 올바른 위치를 지키고 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골닷컴은 팀 내 두 번째로 높은 평점 3개의 평점을 부여했다

◆ 차두리 후반 교체출전

한편 분데스리가에서는 차두리(뒤셀도르프)가 2경기 만에 경기에 나섰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뒤셀도르프는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경기에서 후반 37분 케빈 데 브루인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아쉬운 1-2 역전패했다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휴식을 취했던 차두리는 후반 11분 교체 투입돼 34분간 활약했다 /김민준기자

김주찬이 50억? 내년 FA시장 벌써 기대

이선호의 베이스볼 카페

김주찬은 운이 좋은 선수다 KIA와 4년 50억원짜리 FA 계약을 체결했다 2004년 현대에서 삼성 유니폼을 입었던 심정수(60억원) 이후 두 번째로 많은 돈이다 출중한 도루능력을 갖췄지만 홈런 타자도 아니고, 규정타석 3할 타율은 두 번뿐이라 50억원은 과하다는 평이다

그러나 시장 상황이 그에게 유리했다 11명의 FA 선수 가운데 최대어였다 풍부한 경험을 갖춘 오른손 외야수이자 호타준족형 FA에게 군침을 흘리는 구단이 많았다 원 소속팀 롯데와 잔류협상이 결렬되자 KIA와 한화가 최후의 쟁탈전에 뛰어들었다

KIA는 이주 오랫동안 눈독을 들여왔다 선동열 감독은 일찌감치 김주찬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종범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2번 타자로 낙점했다 구단은 전 감독이 부임한 1년 전 FA 보강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빚을 갚아야 하는 처지였다

한화는 에이스 류현진마저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에 진출하기 때문에 전력보강은 절대적인 화두였다 280억원에 이르는 류현진 이적료까지 준비되어 있었다

양 구단은 16일 부산에 모두 협상 실무진을 파견했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KIA의 승리로 끝났다 김응용 한화 감독은 김주찬의 KIA행을 확인하고 과열된 시장을 불평하며 잡지 못한 구단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궁금한 것은 정근우(SK)·이용규(KIA)·강민호(롯데) 등 베이징 금메달 세대들이 FA 시장에 쏟아져 나오는 2013 스토브리그다 내년 시장은 올해보다 뜨거울 것이다 어쨌든 김주찬의 50억원을 가볍게 넘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거의 FA들의 만찬이다 /OSEN 야구전문기자

driving science

아이들에게 과학을 돌려주자

옛날엔 많은 아이들이 과학자를 꿈꿨었죠 그런데 언제부터 아이들이 같은 꿈만 꾸게 된 걸까요?
아이돌도 필요하지만 우리에겐 과학자가 더 많이 있어야 합니다 결국 나라의 기초는 과학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현대모비스가 노벨프로젝트로 과학의 꿈을 다시 키웁니다

HYUNDAI MOBIS